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2025.10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제출문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귀하

본 보고서를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0

(주)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 권오경

<용역 참여 연구진>

사업총괄 김 종 섭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과제책임 문 수 원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제 1 장 서론	2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지역환경 현황	5
제 1 절 지역 개요	5
1. 구유래 및 연혁	5
2. 위치	6
3. 기상 및 기후	7
4. 하천	8
제 2 절 인문적 특성	9
1. 행정구역	9
2. 인구	10
3. 경제	11
4. 도시인프라	12
제 3 절 문화적 특성	14
1. 문화시설 현황	14
2. 관광명소	15
3. 국가유산	16
제 3 장 국가유산의 실태조사	19
제 1 절 국가유산의 개념	19
1. 국가유산의 개념	19
2. 국가유산법의 기본 내용	20
3. 국가유산의 분류체계	22
제 2 절 국가유산 관련법률 및 계획에 대한 분석	24
1. 국가유산 법률 현황	24
2. 국가유산 관련계획	29

제 3 절 인천 서구 국가유산 관리체계 현황	33
1. 인천광역시	33
2. 인천광역시 서구	35
제 4 절 인천 서구 국가유산 관리현황	36
1. 국가유산 관리조직	36
2. 국가유산 관리주체	39
제 4 장 서구의 국가유산 현황분석	41
제 1 절 국가유산 현황분석	41
1. 문화유산 현황	41
2. 무형유산 현황	53
3. 기타 국가유산(비지정문화유산)	56
제 2 절 국가유산 관련시설 현황분석	57
1. 명상박물관	57
2. 녹청자박물관	58
3. 검단선사박물관	60
4.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61
제 3 절 국가유산 관련시설 활용사례 분석	62
1.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현황	62
제 5 장 서구의 국가유산 보존·활용방안	68
제 1 절 서구의 국가유산 보존·활용방안	68
1. SWOT 분석	68
2. 전략방향	69
3.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70
제 2 절 서구의 국가유산 관련시설 확충방안	99
1. 필요성 및 목적	99
2. 시설 확충의 필요성	99
3. 국가유산 관련시설 확충방안	100
4. 종합 추진방향	102
5. 연차별 추진계획	103

〈표 차례〉

〈표 2-1-1〉 인천광역시 서구의 연혁	7
〈표 2-1-2〉 인천광역시 서구 위치 정보	8
〈표 2-1-3〉 인천광역시 서구 기상 및 기후현황	9
〈표 2-1-4〉 인천광역시 서구 하천 현황	10
〈표 2-2-2〉 인천광역시 서구 연령별 인구현황(2025.6)	13
〈표 2-2-3〉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활동 인구현황(2024년 12월)	14
〈표 2-2-4〉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 현황	14
〈표 2-2-5〉 인천광역시 서구관내 교육기관	15
〈표 2-2-6〉 인천광역시 서구관내 문화·복지시설	15
〈표 2-3-1〉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시설	16
〈표 2-3-2〉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광명소	17
〈표 2-3-3〉 인천광역시 서구의 국가유산	19
〈표 3-1-1〉 국가유산 기본법의 내용	25
〈표 3-1-2〉 국가유산의 분류	26
〈표 3-1-3〉 국가지정유산의 분류	26
〈표 3-1-4〉 시도지정유산의 분류	27
〈표 3-1-5〉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28
〈표 3-2-1〉 국가유산 관련 법령	29
〈표 3-3-1〉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한 조례	37
〈표 3-3-2〉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조례	38
〈표 3-3-3〉 인천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38
〈표 3-3-4〉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39
〈표 3-3-5〉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39
〈표 3-4-1〉 국가유산 관리조직 및 업무	43
〈표 4-1-1〉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정문화유산	61
〈표 4-3-1〉 인천광역시 박물관 현황(2023년말)	67
〈표 4-3-2〉 인천광역시 전시시설 현황	70
〈표 4-3-3〉 인천광역시 전수회관 현황	71

〈그림 차례〉

〈그림 2-1-1〉 인천광역시 서구 위치 현황	8
〈그림 2-1-2〉 인천광역시 서구 하천 현황도	10
〈그림 3-2-1〉 문화유산기본계획 추진전략	34
〈그림 3-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	36
〈그림 3-4-1〉 국가유산청 조직현황	41
〈그림 3-4-2〉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조직현황	42
〈그림 3-4-3〉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조직현황	42
〈그림 4-1-1〉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46
〈그림 4-1-2〉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47
〈그림 4-1-3〉 심즙 신도비	48
〈그림 4-1-4〉 선문염송설화 권1-30	49
〈그림 4-1-5〉 류사놀 묘	50
〈그림 4-1-6〉 조서강 묘	51
〈그림 4-1-7〉 대곡동 고인돌군	52
〈그림 4-1-8〉 한백륜 묘역	53
〈그림 4-1-9〉 김안정 묘 및 묘비	53
〈그림 4-1-10〉 정희량 유허	54
〈그림 4-1-11〉 반남박씨 대중중 묘역	55
〈그림 4-1-12〉 의령남씨 종중 묘역	56
〈그림 4-1-13〉 평산신씨 종중 묘역	57
〈그림 4-1-14〉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58
〈그림 4-1-15〉 서곶들노래	59
〈그림 4-1-16〉 휘모리잡가	60
〈그림 4-1-17〉 고법(북·장구)	60
〈그림 4-1-18〉 서도좌창	61
〈그림 4-2-1〉 명상박물관	63
〈그림 4-2-2〉 녹청자박물관	64
〈그림 4-2-3〉 검단선사박물관	65
〈그림 4-2-4〉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66

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서구의 국가유산을 현대적으로 활용하거나 재탄생시킴으로써 국가유산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과 집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의 국가유산에 대한 활용과 보존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지역민이나 관광객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을 방문하려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하며 서구의 국가유산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서구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서구의 전문 화유산의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함.
- 기본 현황분석을 토대로 서구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를 통해 서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고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였음. 우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5년도를 기준년도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해당 기간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대상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문화유산 현황 등으로 설정하였음. 아울러 문화유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지역 자원 또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서구의 문화유산에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이며,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였음.
- 문헌연구로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및 사례연구 중심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음.
- 실증분석으로는 서구의 문화유산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보존 및 활용방안 등을 분석함.

제2장

지역 환경현황

제 1절	지역개요	5
제 2절	인문적 특성	9
제 3절	문화적 특성	14

제 2 장 지역환경 현황

제 1 절 지역 개요

1. 구유래 및 연혁

- 서기 475년 삼국시대에는 남부 주부토군에 속하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장제군으로 편제되었음. 고려시대에 들어서는 수주를 거쳐 안남도호부, 계양도호부, 길주목, 부평태제부의 관할로 변천하였음. 조선시대에는 부평도호부의 모일곶면과 서곶면으로 구분되었으며, 1940년대에는 인천부에 편입됨. 이처럼 여러 시대에 걸친 행정 변화를 통해 형성된 오랜 역사성을 지닌 지역임.¹⁾

<표 2-1-1> 인천광역시 서구의 연혁

시대	내용
고구려	470 . 주부토군 설치
통일신라	757 . 장제군 설치
고려시대	995 . 수두로 승격개칭→1018년 수주에 지주사 설치
	1150 . 안남도호부 개칭→1215년 계양도호부로 개칭
	1308 . 길주목으로 승격→1310년 부평부로 강등 개칭
조선시대	1413 . 부평도호부 승격→1894년 부평군으로 개칭
대한제국	1914. 3. 1. . 부천군 신설로 서곶면으로 강등
	1940. 4. 1. . 부천군부역 제2차 확장으로 부천군 서곶면이 인천부 편입
대한민국	1945.10.10. . 인천부를 제물포시로 개칭. 제물포시 부평 서곶지청 설치
	1948.11.17. . 법률 제8호에 의거 인천시로 되고 부평 서곶지청을 출장소로 전환
	1968. 1. 1. . 구제설치에 따라 부평출장소와 서곶출장소를 통합
	1978. 7. 1 . 인천시가 인천직할시로 승격
	1988, 1. 1 . 북구에서 서구로 분구
	1995. 1. 1 . 인천광역시로 승격
	1995. 3. 1. .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
2010. 6. 10 . 청라동 신설	
2021. 5. 3. . 아라동 신설	

자료: 인천서구 2025년 규정백서, 2025.

1) 인천광역시 서구, 2025년 규정백서, 2025.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는 북위 37°, 동경 126°로 인천광역시의 서북부 지역에 있는 자치구임. 행정구역상 면적은 119.06km²로 자치구 중에서 중구(140.38 km²)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동쪽으로 계양구와 부평구, 서쪽으로 중구, 남쪽으로 동구, 북쪽으로 강화군, 김포시와 인접해 있어 인천 어느 곳에서나 반경 15km내로 사실상 인천의 중심부라 할 수 있고, 서울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반경 25km권 안에 속하는 서울과 동일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음.

<표 2-1-2> 인천광역시 서구 위치 정보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구청소재지
	지명	동경	북위		
극동	원당동	126° 43' 28"	37° 35' 21"	동서간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극서	원창동	126° 43' 28"	37° 43' 28.5"	13.2km	
극남	가좌3동	126° 60' 59.6"	37° 28' 13.5"	남북	
극북	대곡동	126° 39' 15"	37° 38' 13"	18.4km	



<그림 2-1-1> 인천광역시 서구 위치 현황

3. 기상 및 기후

-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난 21년간(2003년~2023년) 기온 및 강수량 관측값을 토대로 과거 기후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강수량은 감소, 기온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남.²⁾
-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의 평균 최고기온은 8월 29.7℃, 평균 최소기온은 1월 -5.1℃로 나타남.
- 2023년 인천광역시 서구의 연강수량 1,331.4mm이고 월 최대강수량은 8월 297.5mm, 월 최소강수량은 2월 0.5mm로 각각 나타났음.

<표 2-1-3> 인천광역시 서구 기상 및 기후현황

연 별	기 온 (℃)			강 수 량 (mm)	바 람 (m/s)	
	평 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균풍속	최대풍속
2017	12.5	16.3	9.3	1,028.9	3.1	12.2
2018	12.5	16.3	9.2	1,134.4	3.1	12.1
2019	13.2	17.1	9.9	919.5	2.9	18.7
2020	12.8	16.3	9.8	1,311.9	3.1	13.2
2021	13.4	17.1	10.0	1,071.8	2.9	13.9
2022	12.5	16.3	9.3	1,620.5	2.9	11.1
2023	13.4	17.1	10.2	1,331.4	2.6	14.6
1월	-1.6	2.2	-5.1	47.2	2.9	10.2
2월	1.6	5.4	-1.6	0.5	2.8	9.1
3월	8.1	13.0	4.0	10.0	2.9	9.6
4월	12.7	17.0	8.8	70.4	3.1	11.6
5월	18.0	22.4	14.5	133.8	2.4	7.7
6월	21.8	25.4	19.0	116.2	2.2	9.6
7월	25.7	28.4	23.4	370.8	2.4	9.3
8월	26.6	29.7	24.2	297.5	2.1	9.4
9월	23.5	26.7	20.8	129.2	1.6	8.1
10월	16.3	20.1	12.9	16.8	2.3	9.4
11월	6.9	10.7	3.4	63.1	3.3	14.6
12월	1.2	4.5	-2.0	75.9	3.0	10.8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36회 2024 인천서구 기본통계, 2024.

2)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

4. 하천

-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리 주체별 하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8개소, 소하천 11개소로 총 20개소의 하천이 있음. 현재 수계는 아라천을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으로 구분됨. 북측의 경우 검단천, 나진포천이 있고 남측의 경우 심곡천과 공촌천이 있음.

<표 2-1-4> 인천광역시 서구 하천 현황

구분	하천수 (개소)	연장 (km)	유역면적 (km ²)	비고
계	20	57.19	-	-
국가하천	1	7.5	157.14	아라천 18.7(km)
지방하천	8	36.04	95.69	공촌천 외7
소하천	11	13.65	14.86	신기천 외 10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 누리집(<https://www.seo.incheon.kr>)



<그림 2-1-2> 인천광역시 서구 하천 현황도

제 2 절 인문적 특성

1. 행정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는 총 23개의 행정동과 21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행정구역 경계로 행정동인 검암경서동은 법정동인 검암·경서·백석·시천동을 연희동은 연희공촌심곡동을, 신현원창동은 신현원창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원당동은 당하(일부)·원당동을 당하동은 당하(일부)·마전동(일부)을, 오류왕길동은 오류·왕길동을, 아라동은 원당(일부)·당하동(일부)을 관할하고 있음. 신설된 법정동인 청라동은 행정동인 청라1·2·3·4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정동은 가정1·2·3동으로 석남동은 석남1·2·3동으로 가좌동은 가좌1·2·3·4동으로 나누어져 있음. 행정동은 총 859개의 통과 3538개의 반으로 구성됨.³⁾
-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의 일부 동(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은 신설될 검단구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음.

<표 2-2-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구역(2023년 12월말)

동별	동		출장소	통	반	면적 (km ²)
	행정	법정				
합계	23	21	1	843	3481	119.06
검암경서동	1	4	-	66	246	13.92
연희동	1	3	-	57	217	9.47
청라1동	1	1	-	33	111	2.45
청라2동	1		-	46	192	4.98
청라3동	1		-	36	123	13.15
가정1동	1	1	-	58	202	2.44
가정2동	1		-	23	86	1.29
가정3동	1		-	21	91	0.58
신현원창동	1	2	-	44	190	9.80
석남1동	1	1	-	35	165	1.12
석남2동	1		-	30	135	2.74
석남3동	1		-	26	123	1.48

3) 인천광역시 서구, 2025년 규정백서, 2025.

가좌1동	1	1	-	27	123	4.34
가좌2동	1		-	28	121	0.73
가좌3동	1		-	31	145	1.95
가좌4동	1		-	25	99	1.91
검단동	1	2	1	46	180	8.10
블로대곡동	1	2	-	29	125	10.81
원당동	1	2	-	27	129	2.62
당하동	1	2	-	33	155	2.37
오류왕길동	1	2	-	35	126	17.71
마전동	1	1	-	22	125	1.13
아라동	1	2	-	65	272	3.98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36회 2024 인천서구 기본통계, 2024.

2. 인구

- 인천광역시의 서구의 인구는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644,376명이며,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2-1> 인천광역시 서구 인구 변화

동명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6
계	544,556	542,040	555,380	589,013	624,358	634,064	644,376
검암경서동	46,380	45,777	45,483	45,339	54,114	54,333	54,091
연희동	42,490	41,389	40,677	39,515	37,808	37,081	36,724
청라1동	31,385	31,412	31,513	30,883	30,308	30,595	30,478
청라2동	48,770	48,926	48,916	48,163	47,538	48,045	47,844
청라3동	26,819	30,437	31,609	34,406	35,388	36,292	36,103
가정1동	28,179	28,304	28,007	36,195	41,226	41,769	41,503
가정2동	6,784	6,637	6,505	6,248	16,910	17,219	17,042
가정3동	10,133	9,804	9,616	9,289	8,822	8,557	8,453
석남1동	23,007	22,742	22,322	21,776	20,693	19,987	19,897
석남2동	13,863	13,415	13,044	12,560	12,069	11,827	11,698
석남3동	15,223	14,195	13,825	13,477	12,642	12,742	13,116
신현원창동	32,838	32,203	31,643	30,703	29,738	29,237	28,881
가좌1동	11,966	12,251	12,442	12,778	12,567	12,534	12,496
가좌2동	21,035	20,441	19,994	19,421	18,545	18,422	18,200
가좌3동	16,726	16,555	16,604	16,390	15,577	15,158	15,013
가좌4동	11,069	10,865	10,502	10,133	11,853	12,107	12,097
검단동	33,243	33,016	32,853	33,414	32,433	32,481	32,335
블로대곡동	22,990	22,826	22,596	23,499	23,213	24,461	37,068

원당동	24,659	24,579	23,987	23,428	22,756	24,650	24,517
당하동	28,645	28,339	27,799	27,053	28,681	28,737	28,369
오류왕길동	24,894	24,733	25,551	25,124	24,265	24,541	25,025
마전동	23,458	23,194	22,801	22,218	21,660	21,329	21,225
아라동			17,091	47,001	65,552	71,960	72,20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 6.

-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구구조를 인천광역시와 비교해보면,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5-65세 미만 인구는 인천광역시 비율 70.84%보다 높은 72.42%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15세 미만 인구도 13.73%로 인천광역시의 10.8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2025년 6월말 인천광역시 서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26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85%로 인천광역시 전체의 고령인구(18.26%)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2-2> 인천광역시 서구 연령별 인구현황(2025.6)

구분	전체	15세미만	15-65세미만	65세이상
서구	644,376 (100%)	88,447 (13.73%)	466,666 (72.42%)	89,263 (13.85%)
인천광역시	3,039,450 (100%)	331,117 (10.89%)	2,153,185 (70.84%)	555,148 (18.26%)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5.6.

3. 경제

-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제활동 인구는 2021년 298천명에서 2024년 369천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2024년 175천명을 유지하고 있음. 서구의 고용율은 2024년 64.8%로 2021년 대비 3% 이상 증가하였음.

<표 2-2-3> 인천광역시 서구 경제활동 인구현황(2024년 12월)

(단위 :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21	298	286	12	166	64.3	61.7
2022	330	314	16	162	67.1	63.8
2023	358	341	17	171	67.7	64.5
2024	369	353	17	175	67.9	64.8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2025.

4. 도시인프라

1) 주택 현황

- 2023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택현황은 전체 239,621개의 주택에서 단독주택이 4,668개로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233,750개로 97.55%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아파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른 주택보다 다수의 주거지를 차지하고 있음.

<표 2-2-4>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 현황

단위 : 가구, 호

년도	가구수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017	198,236	179,489	6,192	19,204	108,915	4,144	40,954	80
2018	211,847	187,260	6,197	19,237	115,824	4,306	41,654	42
2019	217,887	190,603	6,412	19,599	117,974	3,653	41,946	1,019
2020	223,229	192,595	6,427	19,880	118,872	3,773	42,343	1,300
2021	232,834	204,150	6,441	20,085	130,169	3,854	42,488	1,113
2022	246,944	220,962	4,616	22,189	146,594	4,162	42,631	770
2023	266,168	239,621	4,668	22,466	163,925	4,540	42,819	1,203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36회 2024 인천서구 기본통계, 2024.

2) 사회기반 시설

- 2024년 기준으로 관내교육기관 현황은 총 186개소로 전년대비 5개소가 증가하였음. 관내 교육기관의 경우 서구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관 수요 또한 증가하는 현실임.

<표 2-2-5> 인천광역시 서구관내 교육기관

단위 : 개소

구분	학교수	학생수	학급수
2023	181	79,033	3,423
2024	186	81,902	3,501
유치원	85	9,495	526
초등학교	52	37,878	1,672
중학교	27	18,739	669
고등학교	21	15,488	582
특수학교	1	302	52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36회 2024 인천서구 기본통계, 2025.

- 2023년 기준으로 관내문화·복지시설 현황은 도서관 3개소, 국가유산 17개소,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 체육시설 160개소, 어린이집 412개소, 아동복지시설이 12개소로 나타났음.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4개소, 20개소, 4개소 증가하였음.

<표 2-2-6> 인천광역시 서구관내 문화·복지시설

단위 : 개소

구분	도서관	국가유산	청소년 수련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2022	10	17	4	156	392	8
2023	10	17	4	160	412	12

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제36회 2024 인천서구 기본통계, 2025.

제 3 절 문화적 특성

1. 문화시설 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요 문화시설은 서구문화회관, 청라블루노바홀, 문화공간 터틀, 가정생활문화센터, 정서진아트큐브 등이 있음. 다수의 문화시설은 2020년이후 설치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서구의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적 욕구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2-3-1>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시설

구분	내용
서구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 개관: 1995년 3월 18일 · 주요업무: 기획공연 전시, 공간대관
청라블루노바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20 · 개관: 2021년 7월 21일 · 주요업무: 기획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 공간대관
서구 드림 아카데미(신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지: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54번길 · 개관: 2024년 4월 1일 · 주요업무: 문화예술교육, 꿈의 오케스트라 등
문화공간 터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지: 인천광역시 서구 거북로 108 2층 · 개관: 2024년 5월 17일 · 주요업무: 공연 전시
가정생활 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지: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90 · 개관: 2021년 5월 · 주요업무: 생활문화공간 및 기획사업
정서진아트큐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개지: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1로 41 · 개관: 2019년 5월 · 주요업무: 기획전시, 대관전시, 공간대관

자료: 인천서구 2025년 구정현황, 2025.

2. 관광명소

- 인천광역시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는 아라뱃길, 정서진, 세어도, 녹청자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청라호수공원 등이 있음.

<표 2-3-2>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광명소

구분	내용	
아라뱃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최초의 내륙뱃길 · 한강에서 서해까지 이어지는 자연 휴식공간 · 친수공간 총 8경 중 서구에 1경에서 3경 위치
정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의 해넘이 명소 · 다양한 해양관광시설을 갖추고 있음 · 2012년 정서진 상징조형물 설치
세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창동 위치 유인도 · 면적은 12만평으로 어촌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음 · 자연경관 보존상태가 양호
녹청자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녹청자 조사연구를 위한 설치 운영 · 역사전시실, 기획전시실, 교육과정 운영
검단선사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사시대로의 통로 · 전시실과 체험학습실 운영 · 박물관뒷편 청동기시대 무덤 3기 전시

국립생물자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 최대규모의 표본 수장고 · 한반도 생물의 985종 4천600여점 전시 · 제1전시실, 체험학습실, 꽃자왈생태관, 기획전시실, 전시시청각실, 제2전시실로 구성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환경 관광명소 · 매년 10월 국화축제 운영 · 환경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개발사업 추진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을과 함께하는 휴식 · 아라뱃길에 위치 · 카라반, 오토캠핑, 노지캠핑을 즐길
청라호수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라국제도시내 위치 · 국내 최대 수변공간(면적 69만3000㎡) · 순환산책로, 대형음악분수, 바닥분수, 놀이터 등 다양한 공간 조성

자료: 인천서구 2025년 구정현황, 2025.

3. 국가유산

-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은 국가지정사적 1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1개, 시지정 유형문화유산 2개, 시지정 무형유산 3개, 시지정 기념물 9개, 시지정 문화유산자료 1개, 시지정 문화유산 7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표 2-3-3> 인천광역시 서구의 국가유산

구분	명칭	지정년월일	소재지
국가지정사적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1970.06.08	검암동 438-21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1982.11.09	신현동 131-7
시지정 유형문화유산	심즙 신도비	1994.11.04	공촌동 산8
시지정 유형문화유산	선문염송설화	2015.12.02	가좌동 81-78
시지정 무형유산	서곶들노래	2008.12.15.	-
시지정 무형유산	휘모리잡가	2008.12.10	-
시지정 무형유산	고법(북장구)	2013.04.30	-
시지정 무형유산	서도좌창 ⁴⁾	2024.07.29	
시지정 기념물	류사놀 묘	1990.11.09	경서동 산200-1
시지정 기념물	조서강 묘	1990.11.09	석남동 산119-2
시지정 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1995.03.02	대곡동 147-1
시지정 기념물	한백륜 묘역	2004.04.06	마전동 산120-4
시지정 기념물	김안정 묘 및 묘비	2008.12.01	원당동 810-10
시지정 기념물	허암 정희량 유허지	2009.03.02	검암동 산61-5
시지정 기념물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2010.04.27	대곡동 213-9
시지정 기념물	의령남씨 종중 묘역	2010.04.27	원당동 산82-1
시지정 기념물	평산신씨 종중 묘역	2010.04.27	대곡동 산120-1
시지정 문화유산자료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2014.04.16	석남동 175-9
비지정 문화유산	숙의 문씨 묘		심곡동 산36
비지정 문화유산	경인고속도로 기공지		가좌동 566
비지정 문화유산	축곶봉수대지		가정동 14-9
비지정 문화유산	중심성지		공촌동 산1-2
비지정 문화유산	연희진지		연희동 735-2
비지정 문화유산	연희포대지 ⁵⁾		서구 연희동 산 148
비지정 문화유산	가정지		가정동 474-1

자료: 인천서구 2025년 규정현황, 2025

4) 서도좌창은 규정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에 포함된 문화유산임.

5) 연희포대지는 규정현황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5년 규정백서에는 포함된 비지정문화유산임

제3장

국가유산의 실태조사

제 1절 국가유산의 개념	19
제 2절 국가유산 관련법률 및 계획에 대한 분석	24
제 3절 서구 국가유산 관리체계 현황	33
제 4절 서구 국가유산 관리 현황	36

제 3 장 국가유산의 실태조사

제 1 절 국가유산의 개념

1. 국가유산의 개념

- 62년간 이어온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2024년 5월 변경되었음. 즉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국가유산으로 용어와 분류체계를 통일하였음. 국가유산으로 변경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는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물과 무형문화재까지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국제사회에서는 1954년 헤이그에서 체결된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과 1970년 유네스코 제16차 총회에서 의결된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에서 "문화재라 함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또는 과학적으로 중요함으로써 종교적 또는 세속적 근거에서 각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재산"으로 규정하였음.
 - 1972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의 제17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이하 세계유산 협약)> 에서 '유산'이란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하위개념으로서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을 명확히 분리하였음.

- 2003년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여 문화유산과의 차별을 도모하였음.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1항에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practices), 표출(representation), 표현(expression),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및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cultural spaces) 모두를 의미한다.”고 하였음.
- ‘문화재’ 용어가 가진 의미상 한계를 극복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는 등 문화재 정책 범위의 확장과 시대변화·미래가치를 반영한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재(財)’를 ‘유산(遺産)’이라는 용어로 변환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 ‘국가유산’은 인위적,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말함. 이는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우리 조상의 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동체적 의미와 넓은 범주의 유산 개념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우리 유산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드러내기에 적절한 개념으로 판단됨. 이는 개인이나 특정 주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공유하는 총체적 유산을 뜻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문화국가’ 실현의 기본 이념과도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음.

2. 국가유산법의 기본 내용

- 기존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중에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추출하여 국가유산 관련 법률들의 대장격인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함.
- 국가유산기본법에서 국가유산은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게 더욱 가치 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유산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함.
 -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함.
 -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함.
 -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함.

<표 3-1-1> 국가유산 기본법의 내용

조항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국가유산의 분류체계⁶⁾

- 국가유산의 분류체계의 경우 지정권자별로는 국가와 시·도로 구분되며, 유형별로는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구분됨.

<표 3-1-2> 국가유산의 분류

지정권자별/유형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국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무형유산
시도	시도유형문화유산 시도민속문화유산 시도기념물 시도문화유산자료	시도자연유산 시도자연유산자료	시도무형유산

1) 국가지정유산

- ‘국가지정유산’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유산·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됨.

<표 3-1-3> 국가지정유산의 분류

유형별	내용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송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문화유산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	자연유산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천연기념물	자연유산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국가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국가민속문화유산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6)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2) 시도지정유산

- ‘시도지정유산’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국가유산으로서 유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기념물,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됨.

<표 3-1-4> 시도지정유산의 분류

유형별	내용
유형 문화유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자연유산	자연유산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민속 문화유산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3) 문화유산자료·자연유산자료

- ‘문화유산자료·자연유산자료’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 자연유산 중 향토문화·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자연유산을 지칭함(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4)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임(다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50년 이상이 지

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음.

<표 3-1-5>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구분	내용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5) 비지정유산

- ‘비지정유산’의 경우,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지칭함.

제 2 절 국가유산 관련법률 및 계획에 대한 분석

1. 국가유산 법률 현황

- 국가유산기본법과, 개별 법률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법”이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이라 한다)(이들을 총칭하여 “개별 법률”이라 한다)이 제·개정되어 2024. 5. 17. 발효됨으로써 과거에 비하여 유산에 관한 법체계가 정비되고 분류체계가 개편되었음.

<표 3-2-1> 국가유산 관련 법령

법률	대통령령	부령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매장유산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주요 법률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문화유산법

○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에 관한 법으로, 종전 「문화재보호법」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형태로 법 제명을 개정하고, 법 내용에서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전면 개정하였음.

○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라 함은 아래와 같음.
 -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 자료를 의미함.

2) 자연유산법

- 각종 개발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여건이 악화되어, 그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지정 또한 증대·다양화되어 자연유산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되었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인 규제완화와 자연유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존 및 활용을 포함하는 법규적 요구에서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음.
- “자연유산법”은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적용대상인 자연유산의 개념을 신규 도입하고, 자연유산의 특징을 고려한 기본원칙을 정립하며, 자연유산 유형별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개별 조항을 담아 총 6장 7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①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 포함), ② 식물(그 군락지 포함), ③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④ 천연보호구역, ⑤ 자연경관, ⑥ 역사문화경관, ⑦ 복합경관으로 정의함

3) 무형유산법

- 기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체계도 국제적 협약수준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무형문화재의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

는 등 우리 무형유산보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음.

- 또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전통 유산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률명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음.
- “무형유산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을 목적으로 하면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을 정립하며, 무형유산 유형별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개별 조항을 담아 총 10장 5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법에서 “무형유산”이라 함은 아래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의식)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형성된 가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원형유지 원칙과 강력한 주변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정문화유산 중심 체계를 벗어나,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기반으로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하게 등록문화유산 제도를 확장 운영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음.
-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50년 미만의 문화유산까지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여 면 단위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을 기본원칙을 정립하며, 근현대유산 유형별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개별 조항을 담아서 총 8장 6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법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이라 함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의미함.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함.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현대부동산유산 :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 근현대동산유산 :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2. 국가유산 관련계획

- 국가유산 관련 계획은 문화유산기본계획(문화유산법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자연유산 보호계획(자연유산법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첫 법정 계획),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기본계획(무형유산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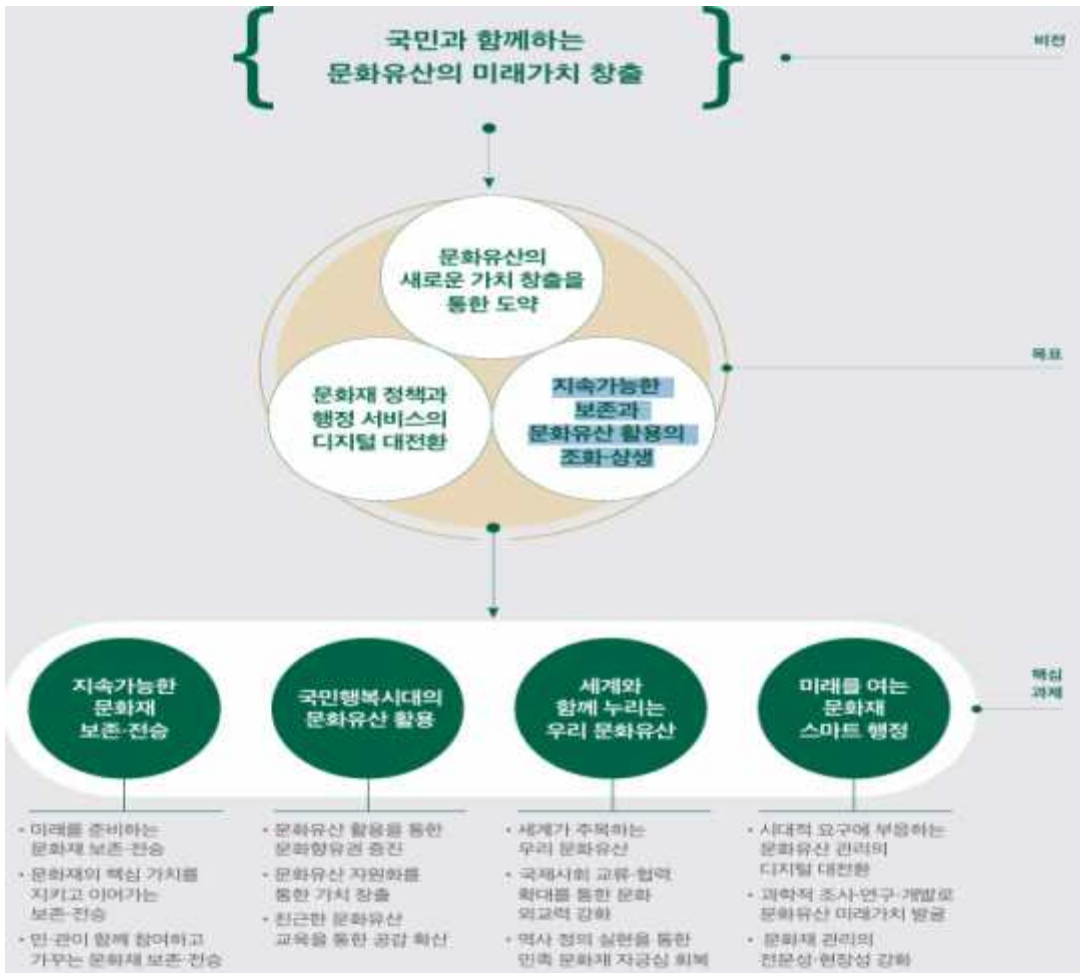
1) 문화유산기본계획(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

- 문화유산 기본계획(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은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임.
-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라서 다음의 9개 사항을 포함해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3. 문화유산 보수·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 2. 문화유산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유산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 2. 문화유산지능정보화에 관한 사항 6의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사항 7. 문화유산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7의 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의 3.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7의 4.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사항 8.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본 계획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도약’, ‘문화재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대전환’, ‘지속가능한 보존과 문화유산 활용의 조화·상생’을 목표로 하여 4개 핵심과제와 1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2-1> 문화유산기본계획 추진전략



2) 자연유산 보호계획

- 2024년 ‘국가유산 체계’ 도입에 맞춰 처음 시행된 ‘자연유산법’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첫 법정계획인 「2025~2029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수립하였음.

- 기존 「문화재보호법」 상에서 ‘기념물’로 구분되었던 자연유산이 지난해 ‘국가유산 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게 되면서, 본 계획은 이러한 자연유산 보호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고 있음.
- 본 계획은 ‘함께 지켜 온 자연유산, 함께 이어가는 미래유산’을 비전으로, ‘보호 역량 고도화’, ‘미래가치 창출’, ‘보존·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와 2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자연유산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이 아닌 국민과 함께 향유하고 미래세대에 전승할 통합적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음.

<표 3-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

(비전) “함께 지켜 온 자연유산, 함께 이어가는 미래유산”
 (목표) ▲자연유산 보호 고도화 ▲외연 확장 ▲보존·활용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	추진과제
자연유산 보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유산 보호 정책 초석 마련 · 자연유산의 유형별 맞춤형 보존·관리 체계 구축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유산 대응역량 고도화
자연유산 미래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유산 패러다임 확장 · 자연유산 정보의 디지털 혁신 · 자연유산 보호 협력 거버넌스 강화
모두가 향유하는 자연유산 일상누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유산 향유 확대 ·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자연유산 활용 · 우리 자연유산의 세계화

3)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2022~2026)⁷⁾

- 제2차 기본계획으로 2022년~2026년, 5개년 기본계획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계획으로 국가유산청 및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방향 제시하는 역할을 함.
- 무형유산법 제6조에 따라서 다음의 6개 사항을 포함해야 함.

7)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2022.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본 계획은 ‘함께 보전하여 모두가 누리는 무형문화재’을 비전으로, ‘(보호대상) 개인·단체에서 공동체로’, ‘(지원체계) 보편형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향가치) 보호·보전을 넘어 가치창출·대국민 향유로’로 방향을 설정하여 3대 전략 및 10개 핵심과제와 32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음.

<그림 3-2-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기본계획 추진전략



제 3 절 인천 서구 국가유산 관리체계 현황

- 인천광역시 서구의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그리고 인천광역시 조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조례”,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에 따름.

1.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한 조례(2024.06.10.시행)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 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유산과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0조 제6항에 따라 시등록 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3-3-1> 인천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관한 조례

조항	세부내용
제1장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제17조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시지정문화유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이하 “시유형문화유산”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기념물(이하 “시기념물”이라 한다) 3. 인천광역시 민속문화유산(이하 “시민속문화유산”이라 한다)
제5장제35조 시등록문화유산	시장은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유산(이하 “시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2024.06.10.시행)

-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4조, 제3장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긴급보호 무형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보유자·명예보유자·전수교육사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3-3-2>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조례

조항	세부내용
제1장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무형유산의 지정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이라 한다)을 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시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시장은 무형유산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3)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06.10.시행)

- 인천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는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와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표 3-3-3> 인천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항	세부내용
제1장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시자연유산의 지정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자료는 총괄하여 지정한다.
제18조 보호구역의 지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인위적·자연적 조건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보호구역 등의 지정기준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1)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2024.06.10.시행)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3-3-4>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항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생산·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 4. 그 밖에 국가유산 활용·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2024.12.20.시행)

-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음.

<표 3-3-5>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항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6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제2조 유·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3) 기타 국가유산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즉 녹청자 시설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규정함.
-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는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녹청자 박물관과 유사하게 시설운영에 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규정함.

제 4 절 인천 서구 국가유산 관리현황

1. 국가유산 관리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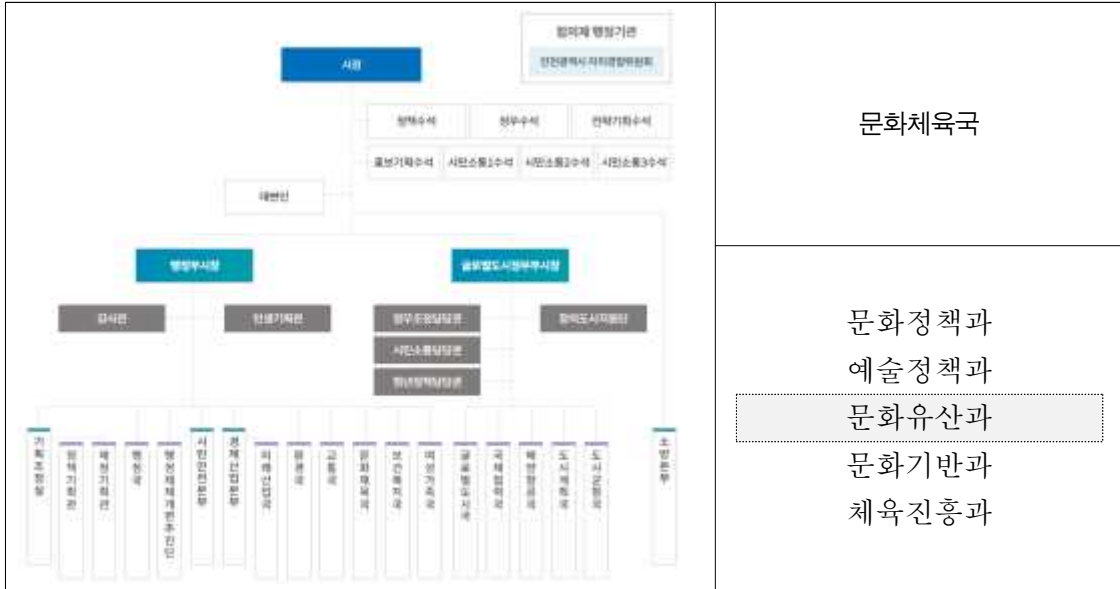
- 대한민국 국가유산 관리의 핵심 조직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조사·연구 및 국가유산 가치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국가유산청은 차관급 청장 아래 차장, 기획조정관, 그리고 유산정책국,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을 둔 1관 4국 24과 1단 5팀 체제이며, 소속기관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등이 있음.
-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인 경우는 문화유산정책과, 자연유산인 경우 자연유산정책과, 무형유산인 경우 무형유산정책과에서 국가유산의 관리·정책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음.

<그림 3-4-1> 국가유산청 조직현황



-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유산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즉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시도지정유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과에서 해당 유산의 관리·정책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3-4-2>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조직현황



- 그 외 비지정유산과 국가유산 보수 등의 시설 유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체육과 국가유산관광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림 3-4-3>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조직현황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조직의 업무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4-1> 국가유산 관리조직 및 업무

자치단체	국	과	팀	업무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유산정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국가유산 제도 운영 · 연간 문화유산 시행계획 수립, 조례 제·개정 등 · 인천 지역유산 추진 운영 · 지역유산 조사 및 선정, 위원회 심의, 활용정책 등 · 국가유산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유산보호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구역 포함)지정, 해제 및 관리 · 국가유산 돌봄사업 · 국가유산 활용사업
			유산계승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지정 무형유산 지정·해제 및 내역관리 · 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자 등 인정·해제 및 내역관리 · 전수교육관 관리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국가유산관광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 지정문화재 자료보존 및 관리 ·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2. 국가유산 관리주체

- 지정 및 등록유산의 관리는 문화유산법 제33조, 무형유산법 제25조에 의해서 소유자가 해당 유산을 관리 및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해당 유산을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해산을 관리할 능력과 조건이 충족되는 단체나 법인이 관리단체가 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지정 국가유산의 소유자는 정부기관인 경우가 2건(녹청자 요지, 정희량 유허), 인천시 서구 1건(신현동 회화나무), 종교단체가 2건(선문염송설화 권1-30권,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개인소유가 1건(대곡동 고인돌군), 법인(종중 등) 8건이 있음.

제4장

서구의 국가유산 현황분석

제 1절 국가유산 현황분석	41
제 2절 국가유산 관련시설 현황분석	57
제 3절 국가유산 관련시설 활용사례 분석	62

제 4 장 서구의 국가유산 현황분석


제 1 절 국가유산 현황분석

1. 문화유산 현황⁸⁾

1)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 인천 검암동에 위치한 녹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청자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 10~11세기경 조성된 5~6기의 가마 유구가 확인된 지역이다. 현재 발굴된 가마 일부는 보호시설을 통해 보존되고 있으나, 주변 일대가 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유적의 공간적 맥락과 역사적 가치 인식에는 제약이 따르는 실정임
- 경서동 녹청자 요지는 해방이후 한국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굴조사된 생산유적이자, 1970년 6월 8일 사적 제211호 문화재로 지정되어 인천 최초의 문화재로 사적(史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4-1-1>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명 칭:	인천 경서동 녹청자 요지	
지 정:	사적	
등록일:	1970.06.08	
위 치:	검암동 산 438-21일원	

8) 문화유산에 관한 설명은 문화유산청 문화유산포털과 인천광역시 서구 누리집(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2)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 인천 신현동에 위치한 회화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임. 회목, 회화목, 괴목, 괴화목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음. 해당 수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함. 황백색 계열의 꽃은 여름철인 8월경 개화하며, 길이는 대체로 12~15cm 정도임. 해당 꽃에는 루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고혈압 완화 및 지혈 관련 약재로 활용됨.⁹⁾
- 인천 신현동에 위치한 회화나무는 지정일을 기준으로 수령이 약 500년 내외로 추정됨. 수고는 약 22m이며, 가슴높이 둘레는 약 1.76~5.84m 범위임. 가지는 사방으로 넓게 뻗어 있어 마을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이 되는 그늘을 제공해 왔음. 또한 예로부터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상징적 나무로 인식되어 왔음.
-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는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선조들의 보호와 관리 속에서 존속해 온 수목임. 문화적 의미와 생물학적 연구 가치가 크다고 평가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음.

<그림 4-1-2> 인천 신현동 회화나무


명 칭:	신현동 회화나무	
지 정:	천연기념물	
등록일:	1982.11.09	
위 치:	인천 서구 신현동 131-7번지 6필	

9) 인천광역시 서구, 누리집(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

3) 심증 신도비

- 신도(神道)는 사망자의 무덤으로 이어지는 길, 즉 묘로(墓路)를 의미함. 신도비는 임금이나 고위 관료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 앞이나 묘역으로 향하는 길가에 세워진 비석을 가리킴.
- 해당 신도비는 조선 인조 연간의 문신인 심증(1569~1644)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것임. 심증은 1597년(선조 30) 문과에 합격한 이후 형조·공조·예조의 판서를 지냈음. 또한 이괄의 난 당시 인조가 공주로 피난할 때 수행하여 호종공신으로 책록되었음.
- 심증의 묘는 본래 시흥에 있다가 서구 공촌동으로 이장하였으며, 이때 신도비도 함께 이곳에 옮겼다고 함. 신도비는 전체 높이 약 1.9m이며, 너비 0.85m, 폭 0.53m 규모임. 비문은 거유(巨儒)로 알려진 송시열(宋時烈)이 지었으며, 글씨는 홍봉조(洪鳳祚 : 1680~1760)가 담당함. 비문을 비석에 새기는 작업은 유척기가 수행함.¹⁰⁾

<그림 4-1-3> 심증 신도비

<p>명 칭: 심증 신도비</p> <p>지 정: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p> <p>등록일: 1995.11.15</p> <p>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25-26 (공촌동)</p>	
---	--

4) 선문염송설화 권1-30

- 고려후기의 승려 각운이 스승인 혜심이 저술한 선문염송집에 대하여 화

10) 인천광역시 서구, 누리집(인천광역시 서구 문화관광).

제에 대한 출처와 특수한 전문용어 해설 격외의 범문등을 해설한 책임. “설화”는 선문염송의 고화 즉 옛화두를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뜻으로 선문염송의 권수와 고칙에 따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이 판본은 숙종 33년 (1707)7월에 전라도 홍양의 팔영산 능가사에서 간행한 것이며, 현재는 법명사 명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

<그림 4-1-4> 선문염송설화 권1-30

<p>명 칭: 선문염송설화 권1-30</p> <p>지 정: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p> <p>등록일: 2015.12.02</p> <p>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163-22 (가좌동)</p>	
--	---

5) 류사눌 묘

- 류사눌묘는 서곶 경서동 금산에 위치해 있으며, 해당 묘역에는 문화류씨가문의 여러 묘가 조성되어 있음. 이 중 류사눌 묘 앞에는 비교적 후대에 마련된 상석과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으며, 성구용이 찬한 묘비가 함께 세워져 있음.
- 본 묘소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활동한 문신인 문숙공 류사눌(1375~1440)의 묘임. 류사눌은 조선 초기 16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18세가 되던 태조 2년(1393)에 식년 문과에 동진사로 급제함. 이후 좌정언을 비롯해 이조·병조정랑 등의 관직을 역임함. 태종 7년(1407) 문과 중시에 병과로 다시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안악으로 유배됨. 유배에서 해제된 이후 경상도 도관찰사로 관직을 재개하였으며, 이후 함경도 도순문사와 강원도 도관찰사 등을 차례로 역

임함. 세종 5년(1423)에는 한성부윤에 임명되었고, 세종 10년(1428)에는 예문관대제학으로서 진하사의 사명을 띠고 명나라에 사행함. 그 뒤 세종 14년(1432)에 동지중추원사에 오름.

- 류사눌은 어린 시절 부모를 일찍 여의고 숙부의 가르침 아래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경전에 해박하고 문장력 또한 뛰어났음. 특히 음악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 예문관 대제학 재직 당시 악학제조를 겸임하며 『아악보』의 서문을 찬함. 세종 16년(1434)에는 『진작가사』를 지어 『제악부』에 수록하였으며, 박연과 함께 아악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림 4-1-5> 류사눌 묘

명 칭: 류사눌 묘 지 정: 인천광역시 기념물 등록일: 1990.11.09 위 치: 인천 서구 경서동 산200-1번지	
--	---

6) 조서강 묘

- 조서강 묘는 석남동 sk에너지 진입로 최측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음.
- 경은(耕隱) 조서강은 조선개국 공신 조반의 아들로 태종14년(1415) 문과에 급제하여 장령을 지내고 세종13년(1431)에 춘추관 기주관이 되어 태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음. 그 뒤 1441년에 도승지를 지냈으며, 1443년 이조 참판이 되었음.
- 묘는 장방형 기대석으로 둘러져 있으며, 전면에는 비석과 문인석 한 쌍이

배치되어 있음. 이와 함께 조서강 묘와 해당 묘역에 설치된 석물들은 조선 초기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인천 지역에서 그 원형이 유지된 유일한 사례로 평가됨.


<그림 4-1-6> 조서강 묘

명 칭: 조서강 묘	
지 정: 인천광역시 기념물	
등록일: 1990.11.09	
위 치: 인천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	

7) 대곡동 고인돌군

- 지식묘는 청동기시대에 조성된 대표적인 장례 유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인돌이라 불림. 주로 경제적 기반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지배층의 무덤으로 이해되고 있음.
- 인천시 서구 대곡동 가현산 일대의 동서로 완만하게 이어진 구릉지에는 고인돌군이 분포하고 있음. 해당 유적은 총 10기로 확인되며, 탁자식과 바둑판식 형태가 혼재되어 있음. 이 중 탁자식 고인돌 2기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표 아래에 묻히거나 주변으로 산재하여 본래의 형태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음. 다만 탁자식 고인돌의 받침돌로 보이는 석재가 확인되고 있어, 해당 고인돌군은 탁자식 형태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이 고인돌군은 아직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지표조사에 의해 그 발견 예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림 4-1-7> 대곡동 고인돌군

명 칭:	대곡동 고인돌군	
지 정:	인천광역시 기념물	
등록일:	1995.03.02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356 (대곡동)	

8) 한백륜 묘역

- 한백륜(1427~1474)은 1446년 음서를 통해 관직 생활을 시작함. 이후 장사랑, 소격전직장, 경복궁사연 등 여러 관직을 차례로 역임함. 앞서 세종 26년(1444)에는 식년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당시 내시별감에 소속되어 있었음. 1462년 딸이 동궁에 입궐하면서 의흥위부사와 의빈부도사를 거쳐 공조정랑에 임명됨. 1468년 예종 즉위 후 딸이 왕후(안순왕후)로 책봉되자 국구의 지위에 올라 보국승록대부 청천군 겸 오위도총부도총관에 봉해짐. 이후 남이의 역모를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워 추충익대공신으로 녹훈됨. 성종 즉위 이후에는 우의정형 경연사·감춘추관사를 겸하며 청천부원군에 봉해졌고, 1471년에는 순성명량경제좌리공신에 책록됨.
- 묘로 이어지는 진입부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으며, 묘역 내부에는 일반적인 문신 묘에 비해 규모가 큰 봉분을 중심으로 묘비, 장명등,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음. 특히 1981년 묘역 정비 과정에서 상석 하부에서 백지로 된 묘지 5매가 확인·발굴되었음.


<그림 4-1-8> 한백륜 묘역

명 칭:	한백륜 묘역	
지 정:	인천광역시 기념물	
등록일:	2004.04.06	
위 치:	인천 서구 마전동 (능안부락) 산120-4	

9) 김안정 묘 및 묘비

- 김안정(金安鼎:고려말기 문신)은 고려말기에 벼슬하여 봉익대부(奉翊大夫) 삼사좌윤(三司左尹)에 이르렀으니 이는 대신의 품계임. 공의 묘는 송도인 근에 조성되었지만 이 후에 분실됨.
- 해당 묘비는 1634년 7대와 8대 후손들이 세운 것으로 풍우에 비문이 마멸된 것을 1786년 현재의 비를 세우면서 묘역에 묻은 것으로 알려짐. 특히 2003년 12월 묘역인근에서 묘 조성 당시 세웠던 구비가 출토되어 보호각을 건립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림 4-1-9> 김안정 묘 및 묘비

명 칭:	김안정 묘 및 묘비	
지 정: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등록일:	2008.12.01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0	

10) 허암 정희량 유허지

- 허암 정희량 유허지는 연산군 대의 문신인 정희량이 은거하였던 옛 주거지의 터로, 인천 검암동 허암산 북측 사면에 자리하고 있음. 현재는 건물 흔적 없이 터의 위치만 확인 가능한 상태임. 『부평부읍지』 고적조에는 허암 옛터가 모월곶면 허암산 아래에 위치하며, 한림학사 정희량이 이곳에 머물며 허암을 호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거취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 조선 중기에 활동한 문신 정희량은 본관이 해주이며, 자는 수부, 호는 허암임. 철원부사 연경의 아들로써 1469년(예종 연간) 서울에서 출생함. 성품이 총명하고 학문이 넓어 문예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음양학에도 밝았던 인물로 전해짐. 벼슬의 영달에는 큰 뜻을 두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저서로는 『허암집』이 전함.

<그림 4-1-10> 정희량 유허

<p>명 칭: 정희량 유허</p> <p>지 정: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p> <p>등록일: 2009.03.02</p> <p>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 61-5</p>	
--	--

11)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은 반남박씨 가문의 8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인물 10인이 안장된 선영임. 이 묘역에는 사직공 병문, 상주공 임중, 교리공 억년, 정랑공 조년, 유사공 집, 도정공 응인, 사마공 동기, 호군공 동위,

좌참찬 동선과 그 아들 정이 포함되어 있음.

- 본 묘역의 문화유산, 서포공 박동선의 신도비문은 논산의 명현으로 알려진 명재 윤증이 1707년에 찬하였으며, 비문의 서체는 이렴이 담당함. 또한 금주군 박정의 신도비문은 병자호란 당시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과 관련된 충신으로 알려진 백헌 이경석이 1712년에 지었고, 글씨는 박필기가 씀.
- 반남박씨는 고려 고종 대에 나주 반남현의 호장이었던 박응주를 시조로 하는 가문임. 조선 초 좌의정 평도공 박은을 비롯하여 인종의 비 인성왕후, 선조의 비 의인왕후, 순조의 모친 현목유비 등 왕실 인척을 다수 배출한 명문임. 또한 의빈(부마) 5인, 재상 7인, 문과 급제자 202인, 사마시 합격자 460인을 비롯해 동국 명현·명신 5인을 배출함. 아울러 문묘(성균관)에 배향된 박세채, 실학 사상의 선구자인 박세당, 『열하일기』의 저자인 박지원, 개화사상의 선각자 박규수, 초대 주미 공사이자 총리대신을 지낸 박정양,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금릉도위 박영효, 그리고 독립운동가 박찬익·박영준 부자 등이 포함된 가문임.

<그림 4-1-11>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명 칭: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지 정: 인천광역시 기념물	
등록일: 2010.04.27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13-9	

12) 의령남씨 종중 묘역

- 의령 남씨 부정공파 두장 공계 문중 묘역에는 남정화·남정의·남두장의 묘

등 3기의 묘가 조성되어 있음. 이들 묘에는 묘표, 묘갈, 상석, 향로석, 문인석, 망주석 등 조선 후기 석물이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 조선 시대 사대부 묘역의 형식과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음.

- 남정화(南挺華) 묘에 배치된 석물은 1679년에 조성된 것임. 묘갈문은 김석주가 찬하였고, 글씨는 이정영이 씀. 망주석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팔각형 기둥 형태임. 상단의 공 모양 장식은 끝이 뾰족한 연꽃 봉오리 형상을 띠고 있고, 외곽에는 구슬 모양의 문양이 둘러져 있음.
- 남정(南澗) 묘에 설치된 석물은 1674년에 조성된 것임. 묘표의 문안은 김수항이 지었으며, 글씨는 심익현이 담당함. 문인석은 조례에 참석한 관원의 복식을 형상화한 모습임. 망주석은 한 쌍으로 배치되어 있고, 하부는 팔각형 기둥 형태이며 상단의 공 모양 장식은 끝이 뾰족한 연꽃 봉오리 형상을 띠고 있음. 가장자리에는 구슬 모양의 장식이 둘러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석조 미술품으로서 뛰어난 조각 기법과 예술성을 보여 줌.
- 남두장(南斗長) 묘에 배치된 석물은 1701년에 조성된 것임. 묘갈의 문안은 남구만이 짓고 글씨 또한 직접 씀. 문인석은 조례에 참석한 관원의 복식을 본뜬 형상으로, 묘역 내 다른 문인석에 비해 다소 작은 규모이나 전체적으로 아담하면서도 뛰어난 조각 수법을 보여 줌.


<그림 4-1-12> 의령남씨 종중 묘역

명 칭:	의령남씨 종중 묘역	
지 정:	인천광역시 기념물	
등록일:	2010.04.27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 82-1	

13) 평산신씨 종중 묘역

- 평산 신씨 묘역은 대곡동 황곡에서 두밀로 향하는 소로의 좌측 야산에 위치함. 조선 중종대 문신인 신영이 입향조가 되어 지금은 후손 40여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음. 서남쪽에서 동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야산의 구릉 사면에 4기의 무덤이 단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음. 묘역의 최상단에는 빙부와 빙모의 묘가 조성되어 있음. 그 아래 단에는 이간공의 둘째 아들 승서와 넷째 아들 광서의 묘가 배치되어 있으며, 최하단에는 모두 이간공의 후손 묘가 자리하고 있음.
- 신영은 연산군 5년(1499)부터 명종 14년(1559)까지 활동한 조선 시대 문신임. 자는 윤보이며 본관은 평산으로, 사직서령 세경의 아들임. 김식의 문인으로 중종 11년(1516)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관직의 말년에는 지중추부사로 재직함. 시호는 이간이며, 배위는 단양 우씨와 합장되어 있음.
-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사대부 묘역의 전형적 형식을 충실히 보존하고 있음. 또한 여손의 봉사를 위해 사위에게 재산과 권한을 상속한 사례를 보여 주는 실증적 자료로 평가됨.

<그림 4-1-13> 평산신씨 종중 묘역

명 칭:	평산신씨 종중 묘역	
지 정:	인천광역시 기념물	
등록일:	2010.04.27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68번 안길 11 (대곡동)	

14)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 철조여래좌상은 상호가 원만하고 동체가 균정하며 특히 옷깃 등 의문에 조각이 장식된 점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양식수법을 계승한 조선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됨.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철조여래좌상은 묘향산에서 모셨던 것이 이곳으로 전해져 왔다고 함. 현재는 석남동에 있는 용수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그림 4-1-14> 용수사 철조여래좌상

<p>명 칭: 용수사 철조여래좌상</p> <p>지 정: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자료</p> <p>등록일: 2014.04.16</p> <p>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51번안길 14-2 (석남동, 용수사(조계종))</p>	
---	---

2. 무형유산 현황

1) 서곶들노래

- 현재의 인천 서구 지역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변천되어 온 곳임. 조선 정조 13년(1789)에는 서곶면이라는 방리 명칭이 기록으로 확인됨. 이후 행정구역 명칭이 서곶으로 정비되면서 오늘날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통적인 농경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임.
- 서곶들노래는 인천 서곶 지역 농민들이 예로부터 모찌기와 모심기, 김매기 과정에서 불러 온 농요임. 모찌기와 모심기 소리는 꺾음조를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선율이 특징으로 예술적 가치로도 서구지역만의 전통문화로 대표할 수 있음. 매기 소리는 애벌·두벌·세벌매기로 구분되며, 농사일의 능률을 돕기 위해 선창의 짧은 장단과 후창의 긴 장단이 어우러지는 교창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어 서곶들노래 보존회가 보존해오고 있음. 11)

<그림 4-1-15> 서곶들노래

<p>명 칭: 서곶들노래</p> <p>지 정: 인천광역시 무형유산</p> <p>등록일: 2008.12.15.</p>	
--	---

2) 휘모리잡가

- 휘모리잡가는 전통사회에서 전승되어 조선 말기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특히 성행하였던 노래 갈래의 하나임. 기생·사당패·소리꾼 등 전문 예능인들이 비교적 긴 사설을 기교적인 음악 어법으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며, 구조가 단순한 비전문가 중심의 민요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휘모리 잡가는 빠른 속도로 몰아치는 형식의 잡가를 의미하며, 서서 부르는 것이 특징임. 사설시조와 유사한 요소가 있으나 장단 구성과 창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임.
-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휘모리잡가에는 곰보타령, 생매잡아, 만학천봉, 육칠월, 흐린 날, 한잔 부어라, 병정타령, 순검타령, 기생타령, 바위타령, 비단타령, 맹꽁이타령 등이 포함됨.

11) 김미연, 「인천 해안지역의 전래 민속놀이 전승 대안 연구」, 청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14쪽.


<그림 4-1-16> 휘모리잡가

<p>명 칭: 휘모리잡가</p> <p>지 정: 인천광역시 무형유산</p> <p>등록일: 2008.12.10</p>	
---	--

3) 고법(북·장구)

- 고법(鼓法)은 판소리의 북 반주의 법례를 의미함. 고수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엇중모리 등 여러 장단을 구사하여 소리꾼의 창을 반주함. 또한 추임새를 곁들여 소리꾼의 흥을 북돋우고, 전체 소리판의 흐름을 주도함.

<그림 4-1-17> 고법(북·장구)

<p>명 칭: 고법(북·장구)</p> <p>지 정: 인천광역시 무형유산</p> <p>등록일: 2013.04.30</p>	
--	--

4) 서도좌창

- ‘서도좌창’은 서도지방(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민속

성악의 한 갈래로, 앉아서 부른다 하여 좌창(坐唱)이라함. 황해도 출신의 실향민들이 많이 정착한 인천에서도 서도소리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음.

<그림 4-1-18> 서도좌창

<p>명 칭: 서도좌창</p> <p>지 정: 인천광역시 무형유산</p> <p>등록일: 2024.07.29</p>	
--	--

3. 기타 국가유산(비지정문화유산)

- 인천 서구의 비지정문화유산은 숙의문씨묘를 비롯한 총 7개가 존재하고 있음.

<표 4-1-1> 인천광역시 서구 비지정문화유산

비지정문화유산	위치	내용
숙의문씨묘	서구 심곡동 산 36	숙의 문씨묘는 1947년 류희진이 조사·탐사한 결과 묘소와 묘비가 확인되어 봉분을 정비하고 비석을 다시 세운 것임. 묘비에는 ‘문종후궁 숙의문씨지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
고속도로 기공지	인천 서구 가좌동 566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인천 가좌동에서 기공식이 거행됨.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음.
축곶봉수대지	서구 가정동 산55-1	축곶봉수대지는 가정동 축곶산 마루에 위치하고 있음. 축곶 봉수는 남쪽으로 성산 봉수와 북쪽으로 백석산 봉수에 응함
중심성지	서구 공촌동 산1-1	중심성지는 부평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경명현(징맹이고개)에 위치하고 있음. 중심성은 이 경명현을 중심으로 동서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던 산성인데 현재는 완전히 없어지고 성문인 공해루가 서 있던 초석만이 남아 있음
연희진지	서구 연희동 735-2	연희진은 화도진과 함께 수도의 관문이며 해운 요충인 인천 부평 연안이 개항지로 제시될 것에 대비하여 설치된 진임.

비지정문화유산	위치	내용
연희포대지	서구 연희동 산148(용두산 일대)	연희포대지는 연희동 서편 해안 용두산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용두포대라고 불리고 있다. 당초에는 인천 앞바다를 향하여 3좌의 포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포대는 없어지고 축대만이 남아 있음.
가정지	서구 가정동 488-10	가정지는 가정동 456번지 4거리에서 서쪽 100m지점에 유적비가 세워져 있음.(루원시티 건설공사 후 현재위치(가정동 488-10)로 이전)조선 창업의 개국공신 조반(1341~1401)의 별장 '가정(佳亭)'이 있었던 터를 표시하는 표지석임.

제 2 절 국가유산 관련시설 현황분석

-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 관련시설은 명상박물관, 녹청자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등이 있음. 녹청자박물관과 선사박물관은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에서는 서곶들노래를 비롯하여 경서호상놀이, 쑥대고잔 지경다지기, 방죽맥이, 꼬댁각시놀이, 인천 아리랑 등 많은 민속예술 작품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1. 명상박물관

- 2014년 9월 인천 서구 가좌동 원적산에 위치한 범명사 경내에서 명상박물관 개관하였음. 해당 박물관은 스님 요사채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178.5㎡ 규모의 전시공간과 99.2㎡의 수장고를 갖추고 문을 열었음.
- 박물관 내부는 불교명상과 명상예술, 한국명상, 중국명상, 인도명상, 기공 등 9가지 대주제에 맞춰 선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불교명상을 배우는 공간은 물론 인도와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불교명상법을 체험할 수 있는 채워져 있음. 이외에도 박물관은 다양한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악을 통한 명상, 인도의 요가, 중국의 단학, 한국의 전통 등 여러 갈래의 명상을 익히고 체험할 수 있음.

- 명상박물관에서 주목할 점은 범명사 주지 선일스님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인천시 지정문화유산 『선문염송설화』, 『묘법연화경』, 『작법귀감』, 『대장일람경』 4점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문화유산은 상당히 희귀한 자료로 알려지고 있음. 그중 『선문염송설화』은 고려 후기의 승려 각운의 스승인 혜심이 저술한 선문염송집에 대하여 화제에 대한 출처와 특수한 선문용어 해설 격외의 범문등을 해설한 책으로 이 판본은 1707(숙종 33)에 전라도 홍양의 팔영산 능가사에서 간행된 것임.
- 사부대중(四部大衆)의 마음 치유와 심신안정을 돕기 위해 처음 인천에 문을 연 '통찰과 행복'을 주제로 명상 서적과 유물전시, 명상 강좌 등을 진행하고 간화선과 목조선 등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행법도 소개하고 있음. 특히 인도와 중국 그리고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명상에 대한 내용을 다룬 도서 300여 권이 배치되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음.

<그림 4-2-1> 명상박물관



2. 녹청자박물관

-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박물관은 1970년 사적 211호로 지정된 <인천 서구 경서동 녹청자요지>에서 출토된 녹청자에 대한 학술자료 조사와 연구, 그리고 향토문화를 지켜나가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음. 2002년 녹청자도요지 사료관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이후 <녹청자도요지 사료

관>에서 <녹청자박물관>으로 시설의 명칭을 바꾸고 2012년 2월 1층 전문 박물관으로 정식 등록되면서 인천에서 유일한 도자기전문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녹청자 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 54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4700㎡(1,421.7평),이며 건축면적은 483.92㎡(252.26평)임. 박물관 시설의 1층은 역사전시실·기획전시실·수장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강의실·가스가마실·편의시설·관리시설 등으로 구성됨. 가마동의 면적은 44.4㎡(13.43평)이며 전통가마 형태로 설치되어 있음.
- 녹청자박물관은 녹청자 유물과 전통 도자기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전시실과 현대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시실로 구분되어 있음. 또한 야외 전시장과 중정에는 200여 점의 기증받은 옹기까지 비교해 볼 수 있어 우리 전통도자기에서부터 현대도예작품까지 도자기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음. 인천 서구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해 나아가고자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전시를 기획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4-2-2> 녹청자박물관



3. 검단선사박물관

- 검단선사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분관으로 개관하였음. 검단 선사 박물관은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전문 박물관으로서 지상 2층, 지하1층, 연면적 약 1,970㎡(596평) 규모임. 박물관 시설의 1층은 안내데스크·상설전시실·2수장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특별전시실·교육실·하늘정원·도서자료실·관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1수장고·기계실로 구성되어 있음.
- 선사시대를 주제로 조성된 전문박물관으로, 전시실 내부에는 인천 서북부 지역인 검단·원당·동양·불로지구 등지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도토류, 골각류, 금속류, 옥석·유리류 등 선사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음. 또한 이 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집터와 돌널무덤(석관묘)을 발굴 당시의 모습에 가깝게 이전·복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사문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함.
- 검단선사박물관은 매년 주제를 달리한 특별전을 개최하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림 4-2-3> 검단선사박물관



4.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2년 05월에 개관하였음. 전수관은 지상3층(연면적 398.05㎡)이며, 1층은 사무실·전시관으로, 2층은 전수교육장·의상제작실·준비실로, 3층은 다목적실로 각각 구성되어 있음.
- 전수관은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되었음. 전수관은 구에서 유래된 무형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서구에서 유래된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자료 등의 수집·보관·전시·발간, 무형유산의 선양 및 홍보, 서구 민속예술의 문화재 등재 및 조사연구·워크숍·세미나, 무형유산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서곶들노래 전수교실, 꿈나무 어린이전수교실, 주민과 함께하는 민요교실, 찾아가는 무형유산 지적학교,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해당 시설의 상주단체로는 서곶들노래보존회, 축대고잔 지경다지기보존회, 인천아리랑보존회, 꼬대각시놀이 보존회 등이 있음. 해당 단체는 매년 정기발표회 등을 통하여 무형유산 보존과 계승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림 4-2-4>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제 3 절 국가유산 관련시설 활용사례 분석

1. 인천광역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현황

1) 박물관

- 2023년 현재, 인천시 관내의 등록된 박물관은 총 29개소임. 구체적으로는 공립이 15개소, 사립이 13개소, 대학 1개소임.
- 공립박물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화군과 중구가 각각 3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연수구와 서구가 2개소이며, 나머지 구의 경우 각각 1개소가 위치해 있음.
- 다만 서구의 경우이 서구 관리시설이 아닌 인천광역시 관리시설이 1개소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해당 시설의 경우 근현대 역사시설이 아닌 조선시대이전 관련 역사시설로 구성되어 있음. 타구와 비교하여 지역의 문화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해당 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민간시설의 경우 등록된 박물관이 서구에는 존재하지 않음. 도시규모에 비해 국가유산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음.

<표 4-3-1> 인천광역시 박물관 현황(2023년말)

시설명	구분	관리기관	내용
강화역사박물관	공립	강화군	강화역사박물관은 강화의 문화유산을 보존·연구하여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진 공립박물관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영상실 등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을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음.
강화자연사박물관	공립	강화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지구를 구성하는 광물과 생물에 대한 탐구를 돕기 위해 2015년에 문을 열었음.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강화전쟁박물관	공립	강화군	강화에서 일어난 전쟁과 관련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음. 강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강화에서 일어난 각종 전쟁 유물 120점을 전시함.
검단선사박물관	공립	인천광역시	-
녹청자박물관	공립	서구	-
부평역사박물관	공립	부평구	부평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고 지역주민에게 정주의식을 함양시키고자 2007년 3월 29일에 개관함. 교육프로그램과 전시실을 운영함.
소래역사관	공립	남동구	2012년 개관한 소래역사관은 급속한 신도시 개발과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소래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옛 모습을 느껴보고자 건립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초의 공립박물관임. 전시실과 교육실 등이 있음.

시설명	구분	관리기관	내용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공립	동구	1960~19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상을 테마로 한 체험 중심의 전문 박물관으로 2005년 10월 25일에 개관함. 시설은 전실과 놀이 체험관등으로 구성됨.
영종역사관	공립	중구	영종역사관은 영종진 터에 자리한 구립박물관으로써 영종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자 개관함. 인천국제공항건설과 함께 시작된 각종 개발사업 중에 출토된 유물을 보존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담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한 공간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공립	인천광역시	역사 고증, 민속·문화예술·인류학 영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시민의 관람에 기여하고, 향토문물 조사·연구·교육·계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임.
인천도시역사관	공립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센트럴파크 내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도시 역사를 다룬 박물관임. 인천의 도시발전 과정을 주제로 1883년 개항 후 근대 도시로 새 출발한 인천의 도시 역사와 변천과정을 만나 볼 수 있음
짜장면박물관	공립	중구	국가등록유산 제246호 '선린동 공화춘' 건물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짜장면 테마박물관임. 6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로 운영하고 있음.
한국이민사박물관	공립	인천광역시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을 맞아 선조들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의 뜻을 모아 건립함. 전체 4개의 전시실은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 인천의 정세와 이민의 배경이 마치 한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펼쳐져 있음
계양산성박물관	공립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은 계양산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산성의 발달사와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건립된 국내 최초의 산성 전문 박물관임. 2개의 전시실과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가천박물관 (연수구)	사립	(재)가천 문화재단	국가지정문화재 14점과 전통의료생활유물 1,000여점, 근 현대의공기구 500여점, 민속생활사유물 800여점, 국내 최대 창간호 9,100여점 희귀양장도서 500여점, 고서 5,200여점, 근대정부기록자료 500여점 등 총 20,000여점을 소장하고 있음.
국제성서박물관 (미추홀구)	사립	주안감리교회	1995년 4월 30일 인천 주안감리교회에서 개관됨. 전 세계의 성서들과 성서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여 성서의 번역과 인쇄 및 활자의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해 설립함
범패민속 문화박물관 (미추홀구)	사립	개인 (김종형, 이용애)	인천 범패민속문화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중 하나인 범패와작법무에 관련된 유물, 국내외 불교의식 법구 및 민화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임. 소장 유물로는 불교의식과 관련한 약기 100여점과 의상 50여 점, 장엄 유물 40여 점, 전적 250여 점, 사진자료 250여 점 등 총 800여 가지의 유물 등이 있음
옥토끼우주센터 (강화군)	사립	개인(안경희)	옥토끼우주센터는 국내 최초의 항공우주과학 테마파크임.. 항공우주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일반 대중들의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애보박물관 (남동구)	사립	개인(황형택)	애보박물관은 인천 남동구에 세워진 최초의 박물관으로 한국전통 공예문화를 접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함. 故 황형택 관장이 40여년간 모은 유물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2009년 7월 박물관을 건립하였음.

제 4 장 서구의 국가유산 현황분석

시설명	구분	관리기관	내용
인천어린이박물관 (미추홀구)	사립	개인(원순미)	인천 문학경기장 내에 위치한 인천어린이박물관은 전시물을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식(hands-on) 박물관임. 지구촌문화탐구, 과학탐구, 교구놀이, 공룡탐험 등 다양한 영역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전시장을 비롯하여 입체영상관, 미술체험실 및 기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음.
인천학생6.25 참전관 (중구)	사립	개인(이경중)	한국전쟁에 참전한 인천 학도의용대의 기록과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임. 건물 1층에 마련된 소박한 개인박물관이지만 법령으로 등록된 정식 박물관일 뿐 아니라 국방대학원 등 전문가들이 찾을 만큼 학도의용군에 관한 한 자료의 방대함이나 희귀성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임.
초연다구박물관	사립	개인(박영혜)	고유의 다도문화가 담겨있는 유물 수집을 토대로, 울의 전통 차 문화르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함. 박물관 1,2층은 수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음.
한국선교 역사기념관 (부평구)	사립	한국선교 역사문화원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 한국 기독교사를 망라하여 전시하고 있는 기독교 전문박물관임. 한국 교회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어 교회사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한국 기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한국전통음식 박물관 (남동구)	사립	개인(황형택)	우리나라 전통음식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됨.. 전통음식 조리기구가 전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됨.
해명단청박물관 (중구)	사립	개인(정성길)	2009년도에 단청을 주제로 오픈한 개인 박물관임. 인간문화재14호 정성길 단청장이 80년도부터 수집한 목재와 불상 등 약2천점이 전시 보관됨.
심장박물관 (계양구)	사립	재단법인 우촌심뇌혈관 연구재단	심뇌혈관 건강 증진과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재단법인 우촌심뇌혈관연구재단이 설립한 사립박물관임. 전시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천공항박물관 (중구)	사립	인천 국제공항공사	개관 20주년을 맞아 2021년 인천공항 탑승동에 개관함. 대한민국 진품 유물과 국가무형문화재, 현대 작가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하대학교 박물관 (미추홀구)	대학	인하대학교	1976년 처음 개관한 이래 조사와 연구, 유물수집, 전시,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천지역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전시시설

- 등록된 박물관외 전시시설의 경우 주로 강화군과 중구에 다수가 위치해 있음. 국가유산을 체험 및 관람할 수 있는 전시시설의 경우도 서구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서구의 경우 농경에서 산업화과정을 거쳐 도시의 발전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설은

전문한 현실임. 강화군이나 중구와 같이 지역의 역사나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전시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4-3-2> 인천광역시 전시시설 현황

시설명	구분	관리기관	내용
한국 근대문학관 (중구)	문학관	인천광역시	인천 한국근대문학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공공 종합문학관으로, 1883년 개항 이후 인천 개항장 근처에 위치한 근대 창고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함. 국근대문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존, 웹진 플랫폼, 출판 사업 등을 하고 있음
인천개항장 근대건축 전시관 (중)	전시관	중구	1883년 인천 개항 이래 120여 년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근대 역사·문화의 공간.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근대 문명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이제는 개항기 인천의 모습, 현존하는 근대건축물 및 소실된 근대건축물을 만날 수 있음.
인천학교 역사관 (중구)	전시관	중구	인천학교역사관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인천에 정착한 학교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역사전시관으로 2015년 6월 11일 개관했습니다. 2층 상설전시실에는 인천학교협회와 학교중산학교·개인이 기증한 학교 관련 자료 등이 전시
대불호텔 전시관·중구생활사 전시관 (중구)	전시관	중구	1관인 대불호텔전시관과 2관인 중구생활사전시관 두 건물로 구성된 '대불호텔 전시관'은 2018년 4월 6일 개관하였음. 1관인 대불호텔전시관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의 유구 위에 당시 건물의 규모와 외형을 고증해 재현한 시설임. 2관인 중구생활사전시관은 1960~70년대 인천 중구의 변천사와 주민의 일상 생활사를 정리해 소개하는 공간임.
백령기독교 역사관 (옹진군)	전시관	개인	19세기 초에 시작된 백령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기독교 선교 기록들을 모아 2001년 11월 20일에 개관함.백령기독교역사관에는 초기 중화동 교회의 모습과 최초의 백령도 복음전파 장면, 서양 선교사가 주민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모습 등이 재현되어 있음
문학산역사관 (미추홀구)	전시관	미추홀구	2018년에는 문학산의 가치를 알리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문학산역사관을 개관함. 정상부의 군사 시설을 개보수한 역사관에는 문학산과 문학산성(제1전시실),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산(제2전시실), 어제와 오늘의 문학산 풍경(열린역사길) 등 크게 3개 주제로 전시가 이뤄지고 있음.
황어장터3.1 만세운동 기념관 (계양구)	전시관	계양구	황어장터의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2월 기념관 조성에 착공하여 같은 해 8월 15일 준공하였음. 시설은 총 1115㎡의 면적에 전시실과 기념탑, 연못과 황어조형물, 관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강화화문석 문화관 (강화군)	전시관	강화군	강화화문석의 역사와 전통 및 변천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공예품을 만나볼 수 있음.2 층 상설전시관과 1층 체험학습장으로 이루어져 있음.
강화농경 문화관 (강화군)	전시관	강화군	강화 농경문화관은 우리나라 전래 농경문화와 미래의 첨단 농업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농경문화교육 공간으로 2003년 6월 12일 개관함.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로 나누어져 있음.
인천상륙 작전기념관 (연수구)	전시관	인천광역시	1950년 공산세력의 불법 침략으로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UN의 깃발아래 목숨을 바쳐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방국가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그 뜻을 소중히 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이 수행되었던 지점에 1984년 건립됨
강화문학관 (강화군)	문학관	강화군	강화출신의 수필가 故 조경희 선생께서 2005년 8월 타계하시며 강화군에 기증하신 소장품 팔천여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아울러 <한국수필가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신 고인의 수필문학에 끼친 업적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건립함.

3) 전수회관

- 전수회관의 경우 미추홀구에 다수가 위치해 있음.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경우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미추홀구에 위치해 있으며, 서구에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이 있음. 서구에서 관리하는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으로는 농경문화와 관련된 “서곶들노래”가 있음.

<표 4-3-3> 인천광역시 전수회관 현황

시설명	관리기관	내용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인천을 전승지로 하는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후손들에게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 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건립된 장소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연구장소와 각종 전시 체험장소로 구성됨.
원인재 (연수구)	개인 (이씨 문중)	인천 이씨 시조인 이허겸의 묘역을 수호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한 곳임. 전통 혼례, 전시회, 기타행사를 위한 대관으로 운영함.
황해도평산소 놀음굿교육관 (동구)	인천광역시 (황해도평산소놀음굿보존회)	중요무형문화재 제90호 평산소놀음굿은 황해도 평산 지방의 경사굿 중 칠성 제석거리에서 농사의 풍년, 장사의 번창, 자손의 번영 등 풍요와 풍농, 다산을 기원하며 소 모양을 꾸미고 노는 놀이임. 전국적으로 다양한 공연활동을 하고 있음.
은율탈춤보존회 (미추홀구)	은율탈춤보존회	황해도 은율지방에서 유래되오던 탈춤임. 미추홀구 수봉공원에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은율탈춤 원형보존과 전승활동에 노력함
인천예총 국악회관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위탁)	2002년 10월 31일 개관한 국악회관은 인천시가 건립하고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음. 인천의 유일한 국악회관은 인천시민의 문화여건 확충 및 미래의 문화도시로 발전과 지역 국악계의 발전,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 예술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공간임
인천도호부청사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산 자락에 자리한 인천도호부관아는 조선시대에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임. 인천도호부에는 왕권의 상징인 객사를 비롯해 부사의 집무처인 동헌, 내동헌 등 15~16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는 문학초등학교 교정에 객사와 동헌 일부만 보존됨. 청사 내에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음. 맷돌, 다듬이와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북, 징, 팽과리, 소고와 같은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음. 특히 외줄타기와 굴렁쇠, 연날리기, 제기차기, 팽이와 같은 우리나라 전통 놀이문화도 직접 즐길 수 있음.
외포리곶창굿 전수교육관 (강화군)	인천광역시	외포리 곶창굿은 어업에 종사하는 정포 마을과 농업에 종사하는 대정 마을의 풍어와 풍농을 함께 기원하는 도당굿류에 속한다. 전체적으로는 서울, 경기지역의 도당굿 형식을 취하면서 풍어를 위한 선주굿 한거리를 별도로 잡고있음. 전수교육관은 해당굿의 원형보존과 전승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장소임.

제5장

서구의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방안

제 1절 서구의 국가유산 보존·활용방안	68
제 2절 서구 국가유산 관련시설 확충방안	99

제 5 장 서구의 국가유산 보존 · 활용방안

제 1 절 서구의 국가유산 보존 · 활용방안

1. SWOT 분석

1) 강점(Strength)

- 서구는 녹청자 요지(사적), 신현동 회화나무(천연기념물), 대곡동 고인돌군 등 다양한 지정문화유산을 보유
- 청라국제도시, 아라뱃길, 생태공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풍부한 관광·도시 인프라 존재
- 지역주민의 문화유산 보존·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와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대규모 인구(64만 명, 인천 자치구 중 1위)와 활발한 경제활동 기반

2) 약점(Weakness)

- 일부 국가유산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관리체계가 분절적이며, 전문 관리인력이 부족
- 무형유산(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등)의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전승자 고령화 문제 발생
- 비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사각지대 존재(예: 숙의문씨 묘, 봉수대지 등)
- 현대적 활용 콘텐츠 및 ICT 접목 부족으로 관광·교육적 활용도 제한적

3) 기회(Opportunity)

- 최근 국가 차원에서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체계 전환, 새로운 정책·재정지원 기회 확대

-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청라호수공원, 아라뱃길 등과 결합한 복합 관광·문화 벨트 조성 가능
- 디지털 전환(메타버스, VR·AR 전시, AI 해설 등)을 통한 청소년·관광객 친화형 활용 확대.
- 서구의 급격한 인구 성장과 젊은 세대 유입으로 문화향유 수요 증가

4) 위협(Threat)

- 도시 개발 및 주거 확대에 의한 문화유산 훼손 위험.
- 중앙정부, 광역시 단위와의 정책·예산 중복 및 협력 한계.
- 전통문화에 대한 청년층 무관심으로 장기적 전승 단절 우려.
- 관광 상업화로 인한 유산의 정체성 희석 및 난개발 가능성

2. 전략방향

1) SO 전략 (강점·기회 활용)

- 국가유산+관광 인프라 연계형 전략
 -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과 연계한 국가유산 관광 루트 개발
 - 디지털 콘텐츠(AR 체험, 유산 VR 복원) 제작
-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도시 전략
 - 주민 주도형 문화유산 프로그램(해설사, 축제, 체험) 운영

2) ST 전략 (강점으로 위협 대응)

- 지속가능 보존 관리 강화
 - 개발 압력에 대응한 문화유산 보존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
 - '서구 국가유산 보존기금' 조성
- 청년 세대 참여 확대
 - 청년 예술가·창작자와 협업한 무형유산 콘텐츠 재창조

3) WO 전략 (약점 보완·기회 활용)

- 관리체계 혁신 전략
 - 국가유산 전문 관리인력 확충 및 교육
 - 비지정문화유산 등록제·DB 구축
- 전승 체계 강화 전략
 - 무형유산 전승학교 운영, 온라인 전수관 플랫폼 구축

4) WT 전략 (약점·위협 최소화)

- 위기관리 및 협력체계 강화
 - 중앙·광역·기초 지자체 간 협력체계 및 공동예산 모델 확립
- 정체성 보존형 관광 개발
 - 상업화 방지를 위한 유산 가치 중심의 관광 가이드라인 제정

3.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 전략목표 1.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 관리

✓ 전략과제 1-1. 국가·시·구 지정 및 비지정유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은 국가 지정유산, 시 지정유산, 구 지정유산, 그리고 비지정문화유산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유산별 관리주체와 자료가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 특히 비지정유산은 등록제도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조사·기록·보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개발로 인한 소실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통합형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시·구 단위의 유산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집적·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유산청, 인천광역시 등 상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유산관리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보·신고 기능을 포함하여 참여형 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존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

■ 세부 실행과제

- 통합형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 국가·시·구 단위의 모든 지정 및 비지정 유산 현황을 통합한 DB를 구축한다.
 - 유산별 위치, 사진, 역사적 배경, 보존상태, 관리주체, 활용계획 등 다차원적 정보를 포함한다.
 -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지도형 관리 화면을 구현하여, 유산 분포·현황을 시각적으로 관리 가능하게 한다.
- 비지정문화유산 등록제 도입 및 관리체계 마련
 - 비지정유산의 조사·등재·보존 절차를 표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주민 및 전문가 제보를 통해 신규 유산을 발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 등록된 비지정유산에 대한 관리 매뉴얼(보존기준, 훼손예방지침 등)을 개발·배포한다.
- 주민 참여형 제보·신고 시스템 구축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유산정보를 제보하거나 훼손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제보된 자료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DB에 반영되며, 기여자에게 포인트·인증서 등을 제공하는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 AI·빅데이터 기반 보존관리 고도화
 - AI 분석을 통해 유산의 훼손 가능성, 관리 취약지역, 우선 복원 대상 등을 자동 진단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 드론·IoT 센서를 활용하여 환경 변화(습도·온도·오염 등)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발생 시 자동 알람을 제공한다.
- 통합 플랫폼 운영 거버넌스 구축
 - 서구청, 인천시, 문화유산청, 민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서구 문화유산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스템 운영과 정책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 장기적으로는 전국 지자체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별 관리시스템 간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비지정유산 현황조사 및 데이터 정비 • 통합 DB 기초 구축 및 시범 플랫폼 개발 • 주민제보 시스템 프로토타입 운영 • 비지정유산 등록제 조례(또는 운영지침) 제정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S 기반 통합 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 모바일앱 및 웹서비스 전면 개통 • 주민 참여제도 정착 및 운영인력 전문화 • 인천시·타 자치구 간 유산정보 연계 협약 체결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IoT 기반 보존 예측시스템 고도화 • 전국 단위 문화유산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 문화유산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체계 완성 • 국제기구(UNESCO 등) 협력 기반의 글로벌 확산 추진

■ 기대효과

- 체계적 보존관리 강화: 유산정보의 데이터화·시각화를 통해 훼손 예방 및 보존의 효율성 제고
- 행정 효율성 향상: 국가·시·구 간 중복 업무 최소화 및 정보 공유 체계 확립
- 주민참여형 관리모델 확립: 지역주민이 유산 보존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 기반 마련
- 정책 연계 확대: 인천시 및 문화유산청과의 협력체계 강화로 광역적 정책 추진 가능

✓ 전략과제 1-2. 국가유산 보존구역 지정 및 훼손 방지 대책 마련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는 급속한 도시개발, 도로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일부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원형이 변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개발압력과 환경오염(대기·소음·진동 등)은 유형유산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변 경관의 역사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보호지역의 유산은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여 손상 위험이 높다.
- 따라서 주요 문화유산의 보존가치를 기반으로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환경정비·경관복원·긴급대응 체계를 병행하는 ‘통합적 유산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궁극적으로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며, 유산을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 실행과제

- 문화유산 보존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 주요 유형유산(고인돌군, 녹청자 요지, 정희량 유허 등)을 중심으로 핵심보존구역(Core Zone)과 완충구역(Buffer Zone)을 구분 지정
 - 「국가유산법」 제정 취지에 따라, 인천시 및 서구 조례에 근거한 법적 보호구역 지정 추진
 - 유산별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건축행위 제한, 환경관리 지침 등을 구체화
- 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경관 복원사업 추진
 - 훼손되거나 단절된 주변 경관(전통 마을길, 숲길, 하천변 등)을 복원하여 유산의 역사적 맥락을 회복
 - 전통소재(한옥형 담장, 자연석 포장 등)를 활용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보존구역 내 조명, 안내판, 접근로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향상
- 긴급보존 및 복원 대응체계 구축
 - 자연재해, 개발공사 등으로 인한 훼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주민 연합 ‘긴급보존대응단’ 운영
 - 드론 및 IoT 센서를 활용해 주요 유산의 훼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지수를 예측·경보화
 - 비상복원 예산(예비비 또는 ‘보존기금’ 활용)을 확보하여 즉시 복원 가능 체계 마련

- 지속적 점검 및 주민참여형 보호활동 제도화
 - ‘서구 유산지킴이’(지역주민, 청년봉사단 등) 제도를 도입하여 정기 순찰 및 점검을 수행
 - 주민·학교·단체가 참여하는 “보존의 날”, “유산 환경정화 캠페인” 등 공공참여형 행사 운영
 - 훼손·변형 발견 시 신고 및 조치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모바일 신고플랫폼 운영
- 환경영향평가 연계 유산보존 가이드라인 마련
 - 대규모 개발사업 시 문화유산 영향평가를 사전 의무화하고, 보존구역과 인접한 지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발허용 수준 및 보존완충 기준을 적용
 - 유산보존과 도시계획을 연계한 ‘문화유산 환경관리계획(HEMP, Heritage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수립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대상지(국가·시·구 지정유산) 실태조사 및 훼손도 분석 ● 우선 보존구역(핵심 3~5개소) 지정 추진 ● 긴급보존대응단 조직 및 시범운영 ●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구역 확대 및 법적 보호체계 완비 ● 경관복원·환경정비 사업 본격 시행 ● 주민참여형 순찰 및 신고제도 정착 ● 환경영향평가 연계지침 시범적용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복원사업 상시화 및 예산항목 정례화 ● 전국 지자체와 연계한 ‘국가유산 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 지속적 데이터 업데이트 및 위험 예측 AI 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 유산 훼손 예방 및 체계적 보호: 사전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훼손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
- 경관 가치 회복: 역사적 맥락과 미관이 복원되어 유산의 상징성과 관광 자원이 동시 강화
- 주민 참여 확대: 지역공동체 중심의 상시 보존활동으로 유산보호의 실효성 제고

- 정책 연계 강화: 도시계획·환경정책과의 연동으로 유산보존이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내재화

✓ 전략과제 1-3. 전문 관리인력 양성과 주민 참여형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 내 국가유산은 다양한 유형(유형·무형·자연유산)을 포함하지만, 전문적인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보존관리의 전문성·지속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 현재는 일부 지정유산만이 전문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유산이나 생활유산 영역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또한 주민의 인식 부족과 참여 저조로 인해, 훼손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조기 발견이 어렵다.
- 이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 주민참여형 모니터링 체계를 결합한 “민관 협력형 유산관리 모델”을 구축하여,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부 실행과제

- 국가유산 전문 관리인력 양성 체계 구축
 - 학예사, 문화재 기술자, 보존과학자 등 문화유산 관련 전문직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
 - 인천시·서구청·지역대학(인하대, 인천대 등)과 연계하여 “서구 문화유산 아카데미” 운영
 - 실무 중심의 보수·복원·기록관리·디지털아카이브 교육 실시
 - 우수 이수자에 대해 문화유산 관련 인턴십 및 지역사업 연계 채용 지원
- 주민참여형 유산지킴이(모니터링단) 운영
 - 각 동 단위로 ‘유산지킴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정기 순찰 및 훼손 신고 활동을 수행
 - 활동내용은 통합관리시스템 및 모바일앱과 연동되어 실시간 기록·공유

- 주민봉사단·청소년봉사단과 연계하여 “1동 1유산 보호모델” 추진
- 참여자에게 인증서, 봉사시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 참여 유도
- 청소년·대학생 참여형 교육 및 봉사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대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유산 탐방·기록·해설’ 프로그램을 운영
 - 학교 동아리·진로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유산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제고
 -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문가와의 멘토링 체계 구축으로 전승기반 강화
- 전문가-주민 협업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전문가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평가하고, 주민이 현장정보를 제공하는 이중 점검 체계(Dual Monitoring System) 도입
 - 드론, GIS, IoT센서를 활용하여 주요 유산의 훼손도, 환경변화 등을 실시간 감시
 - AI 기반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위험징후를 조기 예측하고, 대응계획 자동화
- 지속적 평가 및 관리인력 네트워크 운영
 - ‘서구 문화유산 관리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류·정보공유·교육 재훈련 시행
 - 인천시 및 인근 자치구(강화, 부평, 중구 등)와 연계한 광역 문화유산 관리협력체계 구축
 - 매년 활동실적 및 개선사례를 정리한 ‘유산관리 백서’ 발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관리인력 양성교육 과정 신설 및 시범운영 ● 주민 모니터링단 조직 및 시범사업 시행 ● 청소년·대학생 봉사·교육 프로그램 개설 ●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현장보고 체계 구축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관리인력 채용 확대(학예·기술직 중심) ● 정기 순찰 및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정착 ● 전문가-주민 협업체계 고도화(GIS·드론 활용) ● 관리인 네트워크 및 광역협력체계 구성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운영형 관리인력제도 정착(‘서구문화유산돌봄사업단’) ● AI 기반 위험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 청소년세대 전승 기반 강화 및 후속세대 참여 확대 ● 전국 지자체와 연계한 모니터링 통합 플랫폼 구축

■ 기대효과

- 전문성 강화: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기술기반 모니터링으로 관리 수준 향상
- 지속가능한 참여관리: 주민과 청년세대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상시관리 체계 확립
- 신속대응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실시간 점검으로 훼손 및 사고를 조기 대응
- 지역공동체 강화: 주민 중심의 유산보호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전략목표 2. 무형유산 전승 및 교육 강화

✓ 전략과제 2-1. 서구 무형유산 전수학교 운영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는 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판소리 고법 등 지역 고유의 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승자 고령화와 청년층의 관심 저조로 인해 전승단절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현재 무형유산의 전수는 비정기적·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 보존을 위한 제도적 교육체계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 따라서 지역 전승자를 중심으로 학교형 전승교육 시스템(전수학교)을 구축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무형유산을 학습·체험·창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전승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궁극적으로는 무형유산이 과거의 전통에 머물지 않고 현대의 문화교육 콘텐츠로 발전하여,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세부 실행과제

- 무형유산 전수학교 설립 및 운영체계 구축
 - 서구 문화예술회관 또는 별도 전수관 내에 '서구 무형유산 전수학교'를 설립

- 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판소리 고법, 농악, 전통공예등 종목별 전수교실 개설
 - 학예사·전승자·문화예술 교육전문가가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초·중·고생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 방학 집중교육, 주말 프로그램, 연령별 맞춤반(청소년반·성인반) 개설.
- 교육 커리큘럼 및 교수체계 개발
- 전승자의 실기 중심 교육과 현대적 해설·이론교육을 병행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정규수업(자유학기제 등) 연계
 - '1인 1무형유산 배우기' 교재 개발 및 지역 초중등 교과 보조자료로 활용
 - 전수학교 수료자에 대해 자격증 또는 인증서를 발급하여 전승활동 참여 확대
- 전승자 - 청년 예술가 협업체계 강화
- 전승자(보유자)와 청년 예술가가 공동으로 공연, 영상콘텐츠, 창작활동을 진행
 - 예: 서곶들노래+퓨전밴드 공연, 무형유산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 지역 축제 공연 연계등
 - 협업을 통해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 및 새로운 문화상품 개발
- 교육 인프라 및 학습공간 조성
- 서구청 산하 문화시설 내 '전수학교 전용 교육실' 및 실습공간 확보
 - 녹음·영상촬영·악기연습이 가능한 복합형 전승교육 스튜디오 조성
 - 향후 '서구 무형유산 전수관(가칭)'과 연계하여 상설 교육·체험공간으로 확장
- 성과공유 및 정기발표회 개최
- 매년 '무형유산 전수학교 성과공연'을 개최하여 교육성과를 공유하고, 주민참여형 축제로 발전
 - 수강생 작품전시, 공연, 발표회, 전승자 시연 등을 포함한 문화유산 페스티벌형 행사로 정례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학교 설립기획 및 운영주체(서구·문화재단·전승자) 선정 전승종목별 교육과정 시범운영 청소년 대상 체험형 수업(서구 전통음악·무용 등) 개설 교육자료·교재 개발, 기본 인프라 구축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정규교과 및 평생학습 과정 편입 전승자-청년 예술가 협업 확대 및 상설 공연화 전수학교 정규 커리큘럼 정착 지역 전통예술 네트워크 구축(서구문화재단·학교·민간단체 연계)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학교 정례화 및 브랜드화(‘서구무형유산학교’ 인증제 도입) 국제교류형 전승프로그램 운영(한·중·일 청소년 교류, UNESCO 협력 등) 온라인 전수학교와의 연계(메타버스형 수업 시스템 구축) 전수학교 졸업생 중심의 자생적 전승공동체 육성

■ 기대효과

- 전승단절 위기 해소: 전수학교를 통한 교육체계 확립으로 지속적 전승 가능성 강화
- 세대 간 문화공감 확대: 청소년·청년층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및 자긍심 제고
-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서구만의 전통예술 브랜드 형성으로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
- 문화교육 기반 구축: 무형유산을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 가능

✓ 전략과제 2-2. 온라인 전승 플랫폼(메타버스 전수관)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전통문화 전승은 단순한 ‘현장 중심 교육’만으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환경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온라인 전승체계의 필요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인천 서구의 무형유산(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판소리 고법 등)은 현장

전승이 중심이지만, 기록·보존·교육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어 디지털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메타버스·AR·VR 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전수관”을 구축하여, 전승자의 지식과 기술을 가상공간에서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디지털 전승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 궁극적으로는 서구 무형유산을 국내외 이용자가 함께 배우고 향유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유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 세부 실행과제

- 메타버스 기반 온라인 전수관 구축
 -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서구 무형유산 전수관(Seogu Virtual Heritage Hall)’을 구현
 - 실제 전수관과 동일한 3D 가상공간을 구성하고, 이용자가 캐릭터(아바타)를 통해 수업, 공연,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
 - 전통공연 체험홀, 무형유산 자료관, 전승자 인터뷰존, 청소년 체험존등 테마별 가상공간 구성
 - 인천시·서구청·문화유산청의 콘텐츠 연계로 공공플랫폼 성격 강화
- AR·VR 콘텐츠 제작 및 상설 운영
 - 무형유산 공연, 전통공예, 노래·춤 등 실연 장면을 VR·360도 영상으로 기록
 - 전통악기 연주법, 공예 제작과정 등을 AR 기반으로 체험 가능하게 구현
 - 디지털콘텐츠는 웹·모바일·메타버스 내에서 동시에 서비스하여 접근성 확보
 - ‘AR 전통체험 앱’을 개발하여 학교 교육,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
- AI 기반 전승자 영상·음성 아카이브 구축
 - 주요 전승자의 구술, 노래, 시연을 고화질 영상과 음성 데이터로 저장하여 AI 학습용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 향후 AI 음성합성 기술을 통해 전승자의 해설을 자동 재현하거나, 다국어 번역·자막 기능을 탑재
 - 데이터는 문화유산청 통합DB 및 서구문화재단 플랫폼과 연계하여 오픈소스로 제공
- 청소년·관광객 참여형 인터랙티브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상 온라인 전승체험(예: '나만의 휘모리잡가 배우기') 운영
- 관광객은 메타버스 내에서 '서구 전통문화 탐방 미션'을 수행하며 보상 포인트를 획득
- 학교·청소년단체와 연계해 '온라인 전승학교'정규 프로그램으로 도입
- 플랫폼 운영 및 국제 확산 전략 수립
 - '서구 디지털전승협의체'를 구성(서구청·문화유산청·IT기업·전승자 등 참여)
 - 플랫폼 운영관리, 콘텐츠 갱신, 국제교류 추진 등을 정례화
 - 해외 한류 콘텐츠 플랫폼과 협업하여 영어·중국어·일본어 버전 서비스 제공
 - 향후 UNESCO 무형유산 디지털교육 네트워크와 연계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버스 전수관 기본 설계 및 콘텐츠 기획 • VR·AR 시범 콘텐츠 제작 및 전승자 인터뷰 영상화 • 온라인 교육 플랫폼(웹·모바일) 시범운영 • 청소년 체험형 콘텐츠(가상 공연, 미션형 수업) 개발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정식 개통 및 정례 운영 • AR 체험앱·교육콘텐츠 확대(학교, 도서관, 축제와 연계) • AI 전승자 아카이브 본격 운영 • 서구문화재단 중심의 관리·유지보수 체계 구축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버전 서비스(영·중·일 등 다국어화) • 세계 주요 디지털유산기관과 교류 협약 • '세계무형유산 온라인 박람회' 개최 추진 • UNESCO 디지털전승 협력사업 연계 및 지속 확대

■ 기대효과

- 접근성 강화: 시·공간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형유산 학습환경 구축
- 전승 지속성 제고: 전승자의 지식·기술을 데이터화하여 세대 간 전승단절 방지
- 청년·외국인 친화형 콘텐츠 확산: MZ세대, 해외 이용자에게 친숙한 체험형 교육모델 제공
- 서구 문화브랜드 가치 상승: 디지털 유산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교육 연계 효과 창출

✓ 전략과제 2-3. 청소년·청년 참여형 창작·공연 프로그램 지원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의 무형유산 전승은 현재 고령 전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참여가 제한되어 전승 단절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전통예술을 '보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전승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청소년·청년층이 전통예술을 자신들의 감수성과 미디어 감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궁극적으로는 무형유산의 전통성과 현대문화의 창의성을 융합한 '참여형 전승모델'을 확립하여, 서구를 청년 중심의 문화창작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 세부 실행과제

- 청소년 창작동아리·동호회 지원 사업 운영
 - 청소년과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작동아리를 육성
 - 예: 서구 전통음악 리믹스 공연, 퓨전 국악 밴드, 전통무용·전설 스토리 텔링극 등
 - 동아리 활동비, 공간대관료, 교육코칭비 등을 지원하고, 정기 공연 및 경연대회를 통해 결과를 공유
 - 학교, 청소년센터, 문화재단 등과 협력하여 '1학교 1전통예술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청년 예술가와 전승자의 협업 콘텐츠 제작 지원
 - 청년 예술가(음악가, 안무가, 미디어디자이너 등)와 전승자가 협업해 새로운 융합공연 제작
 - 전통 소재를 현대적 장르(힙합, EDM, 영상아트 등)와 결합하여 무형유

- 산의 대중화를 촉진
 - 예: 서곶들노래 뮤직비디오 프로젝트, 판소리 고법 리믹스 공연, AI 영상예술 결합형 공연 콘텐츠 등
 - 우수작은 지역축제, 학교공연,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메타버스 전수관 등)을 통해 확산
- 청년·청소년 중심의 무형유산 페스티벌 개최
 - 청년이 직접 기획·운영에 참여하는 ‘서구 청년무형유산페스티벌(가칭)’을 연례행사로 정례화
 - 공연, 전시, 체험, 토크콘서트, 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지역기업·대학·예술단체 후원 및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축제 모델 구축
 - 참가자에게 무형유산 창작 경연대회, 창작상 수여 등을 통해 창작 의욕 고취
- 멘토링 및 창작 인큐베이팅 제도 도입
 - 문화예술 전공 학생 및 신진 예술가를 대상으로 전승자·기성예술가와 연계한 멘토링형 창작랩 운영
 - 공연예술·디자인·영상콘텐츠 등 다학제적 협업을 통한 신예 창작자 육성.
 - 예비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창작 프로젝트 공모전’ 개최 및 후속 지원 연계(창작펀드, 전시·공연 지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창작동아리·학교예술활동 지원 및 파일럿 공연 개최 ● 청년예술가-전승자 협업콘텐츠 1~2편 제작 ● 청년무형유산페스티벌 시범 개최 ● 멘토링형 창작랩 구성 및 기초 인프라 조성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전승자 협업콘텐츠 정례화(매년 3~5편 제작) ●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교과과정 연계 ● 청년·청소년 축제 프로그램 상시 운영 및 지역브랜드화 ● 창작공연 지원 펀드(서구문화재단 연계) 운영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예술가 중심 글로벌 문화유산 공연 브랜드 육성 ● 해외 청년예술단체 및 문화기관과의 교류공연 추진 ● 디지털 공연콘텐츠(IP) 산업화 및 수출 기반 마련 ● 지속가능한 청년문화창작 생태계 조성

■ 기대효과

- 세대연결형 전승 촉진: 청소년·청년이 직접 전승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통예술의 지속성과 생명력 강화
- 창의적 문화확산: 전통예술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창출로 대중 친화적 문화 확산
- 청년문화 일자리 창출: 창작공연,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한 청년예술가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지역문화 활성화: 청년주도의 공연문화 확산으로 지역 축제·관광 연계 효과 증대

▶ 전략목표 3. 국가유산 기반 문화관광 활성화

✓ 전략과제 3-1. 아라뱃길·청라호수공원 연계 문화유산 관광 루트 조성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는 아라뱃길, 청라호수공원, 녹청자 요지, 대곡동 고인돌군 등 풍부한 역사·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자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관광 루트와 스토리라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 현재 관광의 흐름은 도시공원과 상업시설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서구의 대표적 자연·역사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문화유산 기반 관광 루트를 조성함으로써, 서구의 도시경관, 문화유산,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복합형 관광벨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본 과제는 단순한 관광코스 개발을 넘어, '유산 체험 - 교육 - 여가 - 관광'을 통합한 지역 브랜드형 문화루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구의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세부 실행과제

- 문화유산 - 관광지 연계형 루트 설계 및 스토리텔링 개발

- 아라뱃길 - 청라호수공원 - 녹청자 요지 - 정희량 유허지 - 대곡동 고인돌군 등 주요 거점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 루트(Seogu Heritage Trail)'설계
- 각 지점의 역사적 의미를 엮은 스토리라인을 구성하여, '물길로 잇는 문화의 시간여행', '서구 천년의 기억길' 등 테마형 브랜드 개발
- 역사·문화·생태자원을 결합한 다층적 해설 콘텐츠 제작
- 친환경 교통수단 연계 관광 인프라 구축
 - 자전거도로, 보행로, 수상버스, 친환경 셔틀 등을 연계하여 이동형 관광 체계구축
 - 아라뱃길 수상버스와 청라호수 순환노선의 연결성 강화
 - 무장애 관광(휠체어·유모차 이용 가능)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
 - 주요 노선에 '디지털 안내표지' 및 QR코드 기반 해설 시스템 설치
- 스마트 관광 콘텐츠 및 AR 기반 안내서비스 도입
 - 주요 유산지점(녹청자 요지, 고인돌군 등)에 AR(증강현실) 해설앱을 적용
 - 스마트폰을 통해 유산의 과거 모습, 발굴 과정, 전승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체험 가능
 - 관광객 맞춤형 AI 가이드(언어선택, 테마별 추천 코스) 기능 탑재
 - 루트별 방문 스탬프 인증제, 디지털 배지 수집 등 참여형 요소 추가
- 관광·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연계
 - 학교 및 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유산탐방 교육프로그램'운영
 - 지역축제(서구문화축제, 아라문화제 등)와 연계한 탐방형 체험행사 개최
 - 가족·청년·외국인 대상 맞춤형 투어(야간조명투어, 유산·미식 탐방 등) 상품 개발
 - 지역상권과 연계한 '문화유산 여행패스' 도입(카페·식당 할인 등)
- 통합 관광홍보 플랫폼 구축
 - 웹·모바일 기반의 통합관광플랫폼(Seogu Heritage Map) 구축
 - 유산별 AR 콘텐츠, 이동경로, 영상해설, 예약·결제 시스템 통합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한·영·중·일) 지원
 - 인천관광공사 및 서구문화재단과 연계한 공동홍보 캠페인 전개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현황조사 및 루트기획 • 시범루트(아라뱃길-녹청자 요지-청라호수공원) 설계 • 관광·교육용 스토리 콘텐츠 제작 • AR 안내시스템 파일럿 운영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루트 정례화 및 상시 운영체계 확립 • 친환경 교통수단 및 시설 연계 확대(수상버스·자전거 등) • 지역축제·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유산탐방 상품 운영 • 통합관광플랫폼 정식 오픈 및 다국어 서비스 구축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강화-김포 연계 광역문화유산벨트 구축 • 국제 관광코스 지정(UNESCO 연계 가능성 검토) • 민관협력형 지속운영체계 확립 • 서구 문화관광 대표 브랜드화(“천년서구 문화길”) 추진

■ 기대효과

- 관광 시너지 창출: 문화·자연·도시관광이 결합된 복합관광벨트 구축으로 지역 관광객 유입 확대
- 유산의 대중화: 역사적 자산을 체험형 콘텐츠로 재해석해 시민참여 및 인식 제고
-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루트와 지역상권의 연계를 통해 문화소비·고용창출 유도
- 서구 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유산+친환경 관광도시’ 이미지 확립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 전략과제 3-2. 국가유산 축제 및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기획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는 녹청자 요지, 대곡동 고인돌군, 정희량 유허 등 다양한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역사적 가치에 비해 대중적 인지도와 문화콘텐츠 활용 수준이 낮은 편이다.
- 기존 축제·행사는 현대 대중문화 중심으로 기획되어, 서구 고유의 역사

와 무형유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지역의 전설, 민속, 인물, 유적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문화유산 기반의 참여형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배우는 ‘생활 속 유산문화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궁극적으로는 서구의 국가유산을 매개로 문화도시 정체성 확립과 관광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 세부 실행과제

- 서구형 국가유산 축제 신설 및 정례화
 - ‘서구 문화유산 대축제(가칭)’을 연례행사로 기획하여, 서구 전역의 유산과 무형예술을 통합 홍보.
 - 주제: “천년의 숨결, 서구의 이야기”, “물길과 들노래가 흐르는 도시” 등 스토리 중심 구성
 - 주요 프로그램:
 - . 전통공연(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풍물한마당)
 - . 무형유산 체험마당(도자기·농악·민요 배우기 등)
 - . 야간 미디어아트 쇼(녹청자 요지·고인돌군 배경)
 - . 청소년·가족 단위 탐험형 프로그램(‘서구유산 보물찾기’)
 - . 문화재단·예술단체·주민자치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축제 운영모델’구축
- 스토리텔링 기반 문화콘텐츠 개발
 - 서구의 설화, 민속, 역사인물(정희량 등)을 소재로 한 연극·뮤지컬·영상 콘텐츠 제작
 - 고인돌군과 녹청자 요지를 배경으로 한 웹드라마·VR 체험 콘텐츠개발
 - 지역 전승예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퓨전 국악 퍼포먼스”, “스토리 뮤직 콘서트”등 제작
 - 지역학교 및 예술대학과 협력하여 스토리기반 창작프로젝트(청년 창작 공모전) 운영
- 참여형 체험·교육형 콘텐츠 강화
 - 유아·청소년·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부스 운영(전통복식·도자기·

놀이 등)

-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우리 동네 유산이야기’교육프로그램 개발
- 지역박물관, 도서관, 학교 등과 협력한 ‘유산 스토리 전시회’ 개최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체험형 부스(AR 고인돌 발굴체험, AI 민요 따라하기 등) 운영

○ 문화관광 연계형 행사 운영

- 청라호수공원, 아라뱃길 등 관광거점과 연계한 야외공연·야시장 운영
- 관광객 대상 유산해설 투어 및 숙박·식음 연계형 관광패키지 개발
- 인천시·관광공사·지역상권과 협력한 공동마케팅 캠페인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 개최(1~2개 프로그램 중심) ● 전설·민속 기반 스토리 콘텐츠 파일럿 제작 ● 체험·교육형 프로그램 파일럿 운영 ●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정례화 및 프로그램 다변화 ● 스토리텔링 공연·뮤지컬 상설 운영 ● 청년예술가 창작공모전 및 콘텐츠 산업화 추진 ● 관광연계형 야간콘텐츠(야간 조명쇼, 유산로드) 본격화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국제적 문화축제로 발전(‘인천 유산문화제’로 확대) ● 해외 문화기관과 교류공연 추진 ● 유산콘텐츠 IP산업화(OTT·AR·VR 콘텐츠 수출) ● 지역대표 문화브랜드로 정착

■ 기대효과

- 문화유산의 대중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체험형 축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유산에 쉽게 접근
-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상권 연계로 지역소비 증대
- 청년문화 확산: 청년예술가·학생 중심의 창작공연을 통한 일자리·창작기회 확대
- 도시정체성 강화: 서구만의 문화스토리과 유산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이미지 구축

✓ 전략과제 3-3. VR·AR·AI 해설 기반 디지털 유산관 개발

■ 필요성 및 목적

- 전통적인 문화유산 전시관은 정적(靜的) 관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 세대(MZ세대)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접근성이 낮고 흥미 유발이 어렵다.
- 반면, VR(가상현실)·AR(증강현실)·AI(인공지능) 기술은 몰입감 있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전시관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경험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 인천 서구는 녹청자 요지, 대곡동 고인돌군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디지털 복원·가상체험 콘텐츠로 구현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궁극적으로는 기술기반 체험형 유산관을 조성하여 국가유산의 교육·관광·홍보 기능을 통합한 미래형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본 과제의 목표이다.

■ 세부 실행과제

- VR 기반 가상복원 콘텐츠 제작 및 전시관 적용
 - 주요 문화유산(예: 녹청자 요지, 대곡동 고인돌군, 정희량 유허지 등)을 3D 스캐닝 및 고해상도 모델링으로 복원.
 - 관람객이 VR기기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과거의 현장'을 직접 탐험하도록 구성.
 - 고인돌 축조 과정, 도자기 제작 장면, 조선시대 서구 지역 생활상을 체험형 영상으로 구현.
 - 학교 교육·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 효과 극대화.
- AR(증강현실) 기반 현장 안내서비스 도입
 - 주요 유적 현장에 QR코드 및 AR 마커 설치, 방문객이 스마트폰·스마트글라스를 통해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 '녹청자 제작과정', '고인돌군 지도 탐색' 등 AR 콘텐츠를 현장에 연동.
 - 야간 방문객을 위한 조명형 AR 가이드 및 길찾기 시스템 개발.

- 향후 'AR 서구유산투어 앱'을 정식 서비스로 확대.
- AI 기반 다국어 해설시스템 구축 및 운영
 - AI 음성인식·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동 해설 서비스제공.
 - 관람객이 관심 있는 유산명을 말하면, AI가 관련 스토리를 시각자료와 함께 해설.
 -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자막형 해설모드 지원.
 - 사용자 행동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유산관 설계 및 운영 인프라 구축
 - 청라·가좌 일대에 '서구 디지털 유산관(가칭)'을 조성하여 실물전시+디지털체험이 가능한 복합형 전시공간 마련.
 - 내부는 ①VR 체험관 ②AR 투어존 ③AI 해설존 ④디지털 전시갤러리로 구성.
 - 문화유산청, 인천시, 민간 IC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운영비를 공동 부담.
 - 운영 초기에는 상설전시 외에 정기 기획전(예: “서구 천년의 시간여행展”) 개최.
- 메타버스형 국제교류 플랫폼 구축
 - 해외 주요 도시(예: 교토, 하노이, 타이베이 등)의 유산기관과 협력하여 '가상전시 교류관' 운영.
 - 이용자는 세계 여러 도시의 유산을 한 공간에서 탐색 가능.
 - 국제적 유산 네트워크(UNESCO Digital Heritage Network 등) 참여로 글로벌 홍보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유산(녹청자 요지, 고인돌군 등) 대상 VR 시범 콘텐츠 제작 ● AR 투어 앱 프로토타입 개발 및 현장 테스트 ● AI 해설엔진 기초 데이터 구축(한국어·영어 중심) ● 디지털 유산관 기본 설계 및 운영모델 연구

구분	주요 내용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유산관 정식 개관 및 운영 인력 양성 • VR·AR 체험존 상시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병행 • AI 다국어 해설 고도화 및 관람객 맞춤형 서비스 도입 • 지역축제·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전시 확대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준의 스마트 유산관 확산(서구→인천권 확장) • 메타버스형 국제교류 플랫폼 정식 운영 • 민관 협력형 콘텐츠 산업화(AR·VR·AI 유산 IP 수출) • 디지털 유산도시 브랜드 구축 및 지속가능 운영체계 확립

■ 기대효과

- 관람경험 혁신: 전통적 전시관의 한계를 넘어선 몰입형 디지털 체험 제공.
- 유산의 대중화 및 교육효과 강화: 세대·언어를 초월한 학습·체험 콘텐츠 확산.
- 관광산업 연계 활성화: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문화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 국제 홍보력 제고: 글로벌 수준의 다국어·메타버스 콘텐츠를 통한 국가유산 브랜드 가치 향상.

▶ 전략목표 4.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활용

✓ 전략과제 4-1. 주민 주도형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해설사·체험단)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체성을 담고 있으나, 그 활용 과정이 대부분 행정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지역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주도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서는 “주민이 스스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자율적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 특히 서구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지역 정체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민 참여형 유산 프로그램은 공동체 회복과 문화적 연대감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과제는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해설사·체험단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고, 교육·관광·경제로 확장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유산활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세부 실행과제

- 주민 해설사 양성 및 상시 운영체계 구축
 - 서구의 지정 및 비지정 유산을 대상으로 한 ‘서구 유산해설사 과정’ 신설.
 - 전문 강사진(학예사, 문화유산청 해설사, 역사학자 등)을 초빙하여 지역사·유산·스토리텔링 중심의 교육 운영.
 - 수료자는 ‘서구문화유산해설사 인증제’를 통해 공식 활동 자격을 부여 받고, 관광·교육·축제 등에서 정기적으로 해설활동 수행.
 - 해설사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기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활동자는 인센티브 및 표창 제공.
- 주민 체험단 구성 및 자율활동 지원
 - ‘서구 문화유산 체험단’을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기획·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
 - 예: 전통놀이·도자기·농악·향토음식 체험 등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 체험단 중심의 “우리 동네 유산학교”, “가족과 함께하는 유산탐방” 등 정기 프로그램 실시.
 - 주민협동조합·동아리·문화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율적 운영 구조 마련.
- 지역단체·학교·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
 -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유산 탐방교실운영.
 -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CSR)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유산체험 후원사업 추진.
 - 노인·여성·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참여형 문화복지형 체험프로그램 확대.
 - 예: 다문화가정 ‘우리 문화 알기’, 시니어 해설단 등 다양한 연령층 참여모델 개발.
- 주민참여형 문화행사 및 홍보활동 강화
 - 주민이 주체가 되는 ‘유산이야기 한마당’, ‘서구 문화유산의 날’ 등 연례행사 개최.
 - 해설사·체험단의 성과발표회 및 교류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성과 공유.

-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주민운영 온라인 홍보단을 구성하여 지역유산 홍보 강화.
- 지속운영을 위한 제도·재정 지원체계 마련
 - 서구청 내 ‘주민참여형 문화유산지원조례(가칭)’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확보.
 - 활동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형 보조금 제도 도입.
 - 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형 유산협동조합’ 모델을 육성하여 자율운영과 수익사업 병행.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해설사 양성교육 개설 및 시범 운영 • 주민 체험단 구성 및 체험프로그램 발굴 • 학교·기업 연계형 체험 시범사업 추진 • 주민네트워크(해설사·체험단 협의회) 구축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화된 해설사 인증제 시행 및 활동영역 확대 • 체험프로그램 정례화 및 공모사업화 • 기업·기관 후원형 유산활동 지원체계 구축 • 주민참여 축제·문화행사와 연계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협동조합형 문화유산센터’ 설립 • 사회적기업 연계 수익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국 단위 주민참여형 유산교류 포럼 개최 • 지속적 교육·평가·인센티브 체계 정착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보존·활용체계 확립: 행정 중심의 일방적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유산활동 정착.
- 공동체 회복: 세대·계층을 아우르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강화.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체험·관광·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일자리·소득 창출.
- 문화민주주의 실현: 주민이 정책의 수혜자에서 주체로 전환되어 문화정책의 지속성과 공공성 강화.

✓ 전략과제 4-2. 문화유산과 지역경제(로컬푸드·공예) 연계 모델 구축

■ 필요성 및 목적

- 서구의 국가유산은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지만, 현재 지역경제와의 연계 수준은 미흡하다.
-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로컬푸드·공예산업 등 지역경제와 연계한 생산적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유산 기반의 관광이 지역 농가, 공예인, 소상공인의 수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문화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목표이다.
- 이를 통해 서구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 세부 실행과제

- 국가유산 관광 연계 로컬푸드·공예 축제 개최
 - 농청자 요지, 고인돌군 등 유산지 인근에서 '서구 로컬문화·유산페스티벌(가칭)' 개최.
 - 지역 농산물, 수공예품, 전통음식, 향토상품을 유산 스토리와 결합하여 전시·판매.
 - '유산밥상', '고인돌 장터', '도자기 아트마켓' 등 체험형 콘텐츠로 관광객 유입 촉진.
 - 인천시·농협·공예협회 등과 협업하여 축제를 문화+경제 융합형 플랫폼으로 발전.
- 지역 장인·공예인과 협업한 문화상품 제작
 - 서구 전통문양, 고인돌 형상, 농청자 패턴 등을 활용한 디자인 공예상품개발.
 - 도자기, 섬유, 목공, 금속공예 등 분야별 장인과 협력해 지역 브랜드 상품화 추진.
 - 청년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한 현대적 감각의 기념품·관광상품 제작.
 - '서구 문화브랜드 인증제'를 도입해 품질·디자인을 관리하고, 백화점·온라인몰 입점 지원.

- 체험형 전통마켓(관광객 참여형) 운영
 -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설형 전통체험마켓(Seogu Heritage Market)운영.
 -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플라마켓, 음식 체험, 공예 워크숍, 미디어 포토존을 결합.
 - 주말형·야시장형 마켓으로 발전시켜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
 - 청라호수공원·아라뱃길 등 관광거점과 연계한 순환형 운영체계 마련.
- 지역경제·사회적기업 연계 플랫폼 구축
 - 유산 연계형 로컬비즈니스 창업 지원(예: 전통간식·도자기 카페·공예체험관 등).
 - 주민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 상품 공동개발.
 - 유산 관련 청년창업공모전 개최, 창업보육센터 내 ‘문화경제 랩(Lab)’ 운영.
- 통합 유통·홍보체계 구축
 - 온라인몰 ‘Seogu Heritage Market’ 개설, 지역상품을 통합 홍보·판매.
 - 관광상품·체험·공예품을 패키지화한 ‘서구 문화유산 패스’도입.
 - SNS, 유튜브, 메타버스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상품 기획 및 디자인 개발 ● 로컬푸드·공예 시범 축제 개최 ● 주민·공예인 네트워크 구성 및 협업체계 구축 ● 온라인 홍보채널 및 유통기반 마련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례형 로컬문화축제 개최(연 1회 이상) ● 서구 문화브랜드 상품화 및 인증제 도입 ● 사회적기업·청년창업 연계형 로컬비즈니스 확산 ● 관광·교육·체험을 결합한 상설 마켓 정착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클러스터’ 조성(공예관·로컬푸드관·체험관 집적화) ● 전국 유통망 연계 및 글로벌 문화상품 수출 기반 구축 ● 서구 문화경제 모델의 전국 확산 및 인천시 대표 브랜드화

■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유산 기반의 로컬푸드·공예 산업 융합으로 지역

내 소비 확대.

-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창업·일자리 창출.
- 주민 소득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 주민이 직접 참여·운영하는 시장·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효과 확산.
-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유산+경제+관광'이 결합된 서구형 문화경제 모델 확립.

✓ 전략과제 4-3. 서구 국가유산 보존기금 조성 및 민관협력 확대

■ 필요성 및 목적

- 인천 서구는 다양한 유형·무형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존사업은 대부분 국비·시비 의존형으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부족하여 중장기 보존·활용사업 추진에 제약이 크다.
- 또한 기업·단체·주민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미비하여, 유산보존이 행정주도형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
- 이에 따라 서구는 공공재정 + 민간기여 + 지역참여가 결합된 “지속가능형 보존재원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서구 국가유산 보존기금’을 설립하여 유산의 장기적 보존·활용, 민관협력,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 세부 실행과제

- 국가유산 보존기금 조성 및 운용체계 구축
 - 서구청 및 인천시 재원을 기반으로 한 기본 출연금 조성.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CSR), 금융권 ESG기금, 문화재단 후원 등을 연계하여 재원을 다각화.
 - 기금은 ▲유산보존사업 ▲복원·복구 ▲교육·홍보 ▲연구·기술개발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
 - 기금 관리 전담조직 ‘서구 문화유산보존기금운용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투명한 운용 보장.

- 민간기업 CSR·ESG 프로그램 연계
 -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건설, 현대제철 등 지역기업과 협력하여 '1기업 1유산 후원제' 도입.
 - ESG 경영 확산 흐름에 맞춰 기업의 문화유산 보존·복원 후원 참여를 유도.
 - 후원기업에는 홍보·브랜딩 혜택('서구문화유산 파트너 인증마크')을 부여하고, 세제감면 및 명예시상제도 도입.
- 주민·시민참여형 후원클럽 및 기부 캠페인 운영
 - '서구유산 지킴이클럽(Seogu Heritage Friends)' 구성하여 주민·시민이 소액 정기후원 가능.
 - 온라인 모금플랫폼을 통한 크라우드펀딩, 유산기부금, 기념품 판매 수익 등을 기금에 적립.
 - 청소년·시니어·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후원 프로그램 운영.
 - 후원자에게는 문화행사 초청, 명예회원증, 디지털 명예의 전당 등 참여 보상 제공.
- 중앙·광역·기초 공동기금 운용체계 마련
 - 문화유산청 - 인천시 - 서구 간 협약을 통해 공동기금 조성.
 - 기금의 일부를 광역문화유산기금에 적립하고, 국비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
 - 인근 지자체(강화군, 부평구 등)와의 공동보존사업 추진 시 협력재정으로 활용.
 - 기금조성 결과를 문화유산청, 인천시 정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제도적 연계 강화.
-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제도화
 - 민간단체, 문화재 전문가, 기업, 주민대표로 구성된 '서구 문화유산협력위원회' 설치.
 - 기금 운용, 사업선정, 평가·감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투명한 민관참여 시스템 구축.
 - 매년 '유산보존 민관포럼'을 개최하여 모범사례 공유 및 신규 후원 파트너 발굴.

■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주요 내용
단기(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조례 제정 • 민간후원제도 설계(기업 CSR, 시민기부 모델 등) • 시범 모금 캠페인 추진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기(3~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운용 개시 및 본격적 민간 후원사업 전개 • 공동기금 기반의 복원·교육·홍보 사업 시행 • 기업 참여형 ESG 보존사업 정례화 • 기금투명성 확보 위한 평가·공시 시스템 도입
장기(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규모 확대 및 안정화(자립형 기금운용 체계 확립) • 전국 확산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로 발전 • 민간·공공이 공동운영하는 문화유산재단 형태로 발전 • 글로벌 문화유산보존 파트너십 구축(UNESCO 협력 포함)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보: 공공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보존재원 마련.
- 민관협력 강화: 기업·주민·행정의 협치 구조 정착으로 사회적 연대 확대.
- 지역경제 파급효과: 후원사업 및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고용 창출.
- 정책 지속성 제고: 장기적 관점의 보존·활용사업 추진 기반 마련.

제 2 절 서구의 국가유산 관련시설 확충방안

1. 필요성 및 목적

- 인천광역시 서구는 녹청자 요지, 대곡동 고인돌군, 정희량 유허지, 서곶 들노래, 휘모리잡가 등 풍부한 유형·무형·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의 관련 시설은 검단선사박물관, 녹청자박물관, 명상박물관, 무형유산 전수관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시설 간 연계성이 약하고 현대적 체험수요나 디지털 기반의 교육·관광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특히 ▲도시개발로 인한 유산 훼손 위험 증가, ▲전승자 고령화 및 청소년 참여 저조, ▲관광·교육·체험의 복합 수요 증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참여형 문화거점 필요성 등이 확대됨에 따라,
- 서구형 국가유산 보존·활용 인프라 확충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따라서 본 절에서는 서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문화·관광·경제와 연계하기 위한 시설 확충의 방향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2. 시설 확충의 필요성

- 보존 측면: 산발적으로 분포한 국가유산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환경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전문 보존공간 필요
- 전승 측면 무형유산 전승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소년·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 교육·전수 인프라 확충 필요
- 활용 측면 관광·교육·체험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대표 문화거점 구축 필요
- 지속가능성 측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필요

3. 국가유산 관련시설 확충방안

1) 통합형 국가유산 박물관(가칭: 서구 국가유산센터) 신설

○ 기능

- 서구 내 유형·무형·자연유산을 아우르는 통합형 전시·교육·연구 복합공간으로 조성.
- 단순 전시를 넘어 보존, 체험, 국제교류, 연구 기능을 결합한 종합 플랫폼 역할 수행.

○ 주요 구성

- 국가유산 통합전시관 : 서구의 유형·무형·자연유산을 주제별·시대별로 연계 전시.
- VR·AR 체험관 : 대곡동 고인돌군 복원 시뮬레이션, 녹청자 제작 체험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
- 청소년 교육실 및 학습센터 : 학교교육·체험학습과 연계한 정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제교류관 : 해외 문화유산기관과의 전시·학술교류 추진.
- 보존연구실 : 유산 상태 진단, 복원기술 연구, 디지털 기록 보존 수행.

○ 기대효과

-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박물관·전수관의 통합관리 및 집적효과 실현.
- 지역 내 교육·관광 중심거점으로 기능하며, 문화도시 서구의 상징시설로 정착.

2) 무형유산 전수·체험관 확대

○ 기능

- 서곶들노래, 휘모리잡가, 판소리 고법 등 무형유산의 전승·체험·창작 중심기지로 확장.
- 전승자·청년예술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형 전승공간 구축.

○ 주요 구성

- 전수학교 설치 : 정규 교육과정, 방학 집중과정, 청소년 체험교실 등 다 단계 전승교육 체계화.
 - 청년 아티스트 협업 스튜디오 :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의 융합창작 공간 조성.
 - 온라인 전수관 연계 : 메타버스형 전수플랫폼과 연동하여 오프라인 교육과 병행 운영.
 - 무형유산 공연홀 : 지역 축제, 상설공연, 전승자 시연 등 공개형 프로그램 정례화.
- 기대효과
- 무형유산 전승 기반 강화 및 청년세대 참여 확대.
 - 지역 예술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문화콘텐츠 생산 기반 확보.

3) 디지털 유산관 구축

- 기능
- VR·AR·AI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형 국가유산 전시관 조성.
 - 유산의 보존·교육·관광을 동시에 실현하는 스마트 문화유산 허브 구축.
- 주요 구성
- VR·AR 콘텐츠 상설관 : 유산 복원, 역사현장 재현, 체험형 게임콘텐츠 제공.
 - AI 다국어 해설시스템 : 외국인 대상 자동음성해설 및 맞춤형 추천 서비스 운영.
 - 디지털 아카이브 존 : 서구 전체 유산 DB, 사진·지도·문헌자료 등 전시·열람 가능.
 - 미디어아트존 : 유산을 현대적 영상·음향으로 재해석한 체험공간.
- 기대효과
- MZ세대 및 외국인 관광객 친화형 콘텐츠 제공.
 - 지역의 디지털문화 산업화 및 글로벌 홍보 인프라 조성.

4)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유산 거점

○ 기능

-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생활밀착형 거점공간 구축.

○ 주요 구성

- 동 단위 소규모 전시관 : 향토유산·민속자료·사진 등 지역별 특화 콘텐츠 전시.
- 전통공예·로컬푸드 체험센터 : 유산 테마 공예체험, 향토음식 만들기, 로컬상품 판매 연계.
- 주민 해설사·체험단 상설 운영 : 주민이 직접 해설·체험을 기획·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화.
- 생활문화축제·골목기획전 :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례화.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문화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고양.
- 유산과 로컬경제의 결합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 및 지속가능한 문화경제 생태계 조성.

4. 종합 추진방향

- 각 시설(박물관, 전시관, 디지털 유산관, 생활문화 거점 등)의 기능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추진 전략을 제시함.

추진영역	주요 내용
① 통합관리체계 구축	• 산재된 유산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통합 플랫폼(정보·운영) 구축
② 첨단기술 융합	• 디지털 전시·체험 기반의 메타버스형 문화유산 콘텐츠 확산
③ 주민참여 강화	• 해설사·체험단·동호회 등 주민주도 프로그램 정례화
④ 민관협력 모델화	• 문화재단·기업·학교·공예인과의 협력 기반 시설 운영
⑤ 지속가능성 확보	• 보존기금·운영조례 등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

5. 연차별 추진계획

- 각 시설의 조성 및 운영을 단기적 기초단계에서 중·장기적 발전단계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단계별 전략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구분	단기(1~2년)	중기(3~5년)	장기(5년~)
통합형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지 확보,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 및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안정화, 국제교류 확대
무형유산 전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수학교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청소년 참여형 전수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전승 플랫폼 연계
디지털 유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VR·AR 시범 콘텐츠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유산관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버스형 글로벌 플랫폼
생활문화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체험관 1~2곳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 전역 생활거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형 운영 모델 정착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년 10월
 - 발행인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 장 권 오 경
 - ▷ 전 화 : 032) 441-2511~3
 - ▷ 홈페이지 : <http://www.kapi.re.kr>
-

【비매품】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